

# 리이호나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8쪽**

우리는 부활을 통해 육신에 대해 어떤  
진리를 배우게 되는가? 14쪽

성적 학대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기, 22쪽

네 적을 알라: 사탄의 네 가지  
전략에 대처하는 법, 30쪽



작업자들이 스위스 베른 성전 건축 부지에서 표지판을 세우고 있다. 스위스 베른 성전은 1955년 9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헌납했다. 이 성전은 북미 지역 이외에 지어진 첫 번째 성전이자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식이 진행된 첫 번째 성전이었다.

사진: 교회 역사박물관 제공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신권의 맹세와 성약



표지  
무덤가에 온 세 명의 마리아, 윌리엄 아돌프 부케로

**특집 기사**

- 8 구주의 속죄: 참된 기독교의 기초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모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 1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육신에 관한 진리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의  
영원하고도 성스러운 특성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 22 희망과 치유로 건너가는 다리  
나는 텔리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성적 학대와 같은 악랄하고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다시 평안과 희망을 찾고 치유될 수  
있을까?
- 28 오래된 가족 앨범: 가족에 얽힌  
이야기의 힘  
암네리스 푸스카수  
내 조상들의 이야기와 삶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

- 30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래리 알 로렌스 장로  
로렌스 장로가 사탄의 네 가지 전략과  
그 전략을 이길 방안을 나눈다.

**교회 본부 기사**

- 20 음악  
주께 오라  
스티븐 케이 존슨 및 마이클 에프  
무디
- 38 신앙의 초상  
스카이드랏 보쿠마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44** 축복사의 축복에 대한 이해  
알리 아넬과 마거릿 윌든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개인 지도와 같다. 그 개인 지도를 통해 방향을 찾는 몇 가지 조언을 소개한다.

**48**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카리나 마르틴스 페레이라  
코헤이아 데 리마  
나는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걱정이 앞섰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50**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질문의 해답을 찾고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52** 나에게 맞는 경전 공부  
가장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경전 공부 방법을 배워 보자.

**56**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  
쿠엔틴 엘 쿡 장로

**57** 교회 자료는 없었지만, 나는 간증을 기억했다  
아브게일 디 페레  
마침 교회 자료를 가져오는 일을 깜빡한 날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 소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내 생각과 설명만으로 충분할까?

**58** 그들은 그분을 보았다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이 간증들을 읽어 보고, 여러분도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62** 우리들 공간

**63** 포스터: 주 예수의 군병들 앞으로 가세

**64**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66** 나쁜 말을 하면  
줄리 시 도널드슨  
나쁜 말을 한 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나요?

**68** 사도들의 답변: 어떻게 하면 가족이 굳건해지도록 힘쓸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69** 성전에 갈 준비는 매일매일!  
조이 디 존스 자매  
존스 자매가 중요한 목표를 세운 방법을 배워 보자.

**70** 눈부시게 빛나는 스타  
제인 맥브라이드  
스타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참석하는 일이 두렵게 느껴졌어요. 과연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요?

**72** 빛이 되라!  
엘리자베스 핀보로우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여덟 가지 방법.

**73** 교회사의 인물들: 복음을 전파하며

**74** 예수님을 생각해요  
린지 태너  
미아는 성찬에 대해 배웠어요.

**76** 예수님 이야기: 성찬을 베푸신 예수님  
킴 웹브 리드

**79** 부활절 백합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반짝반짝 빛이 나요.



2017년 4월호, 제54권 제4호  
리아호나 14444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로프  
**심의회도 정원:**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헬밀즈, 제프리 알 홀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헬콕,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앤들 케이 베네토,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예쉬먼,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드, 더글러스 디 홈즈,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래리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번즈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밀다 애머럴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타니 비에타,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톨리도, 로라 폴러, 게리 에이치 가르, 라림 포터 건드, 질 크리스틴 해킹, 샬라 카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카크, 조슈아 제이 퍼키, 쉐 핀보로우, 리차드 엘 옴나, 민디 앤 셸루, 플 벤덴버그, 머리아 윌슨

**편집 인턴:** 메건 알크넬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뱅클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헝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우리,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티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디자인 인턴:** 마이클 넬슨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케 오윤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스

**제작팀:** 글렌 어더어,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리스 카비, 제니 제이 넬슨, 가일 타데 러퍼티, 데레 리차드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우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우 센터, 혹은 악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13호, 제54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출판정보(주) 채준호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mailto: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g](http://www.lds.org)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 liahona.lds.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소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pril 2017 Vol. 41 No. 4.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다”, 58쪽: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사를 가족들과 함께 읽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않고도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본다. 여러분을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는 일들, 즉 지역 사회에서 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경전 공부를 하면서 구주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배우거나, 부부가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어린 아이를 돌봐 주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mormon.org/easter](http://mormon.org/easter)에서 찾을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성전에 갈 준비는 매일매일!”, 69쪽: 조이 디 존스 자매는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우리 삶의 우선 순위로 삼고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의 밤 활동으로 “가족 역사와 성전의 밤”을 계획해 볼 수 있다. 그 활동에서 여러분은 조상의 이름을 찾고 가족 기록을 조사하는 법에 대해 배워 보거나, 성전 의식들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거나, 또는 세계 여러 성전의 사진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만일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다면, 성전 뜰을 방문하여 성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주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는지를 토론해 볼 수 있다.

##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https://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28

가족, 28, 42, 48, 68

간증, 38, 50, 57, 58

경전 공부, 43, 52, 57

교회 역사, 73

기도, 41, 62, 64

모범, 72

봉사, 4, 42, 68

부활, 8, 14, 58, 76, 79

부활절, 14, 58, 76, 79

성신, 50

성약, 7

성적 학대, 22

성전 예배, 69

성찬, 74, 76

소망, 22, 48

속죄, 8, 22, 74, 76

신권, 7, 80

신앙, 4, 38,, 41, 48, 80

언어, 40, 66

영생, 8, 14

영적인 힘, 4, 30, 63, 80

용기, 40, 57, 63

우정, 70, 72

유혹, 30, 63

육신, 14

지식, 50, 52

천국 전쟁, 30

축복사의 축복, 44

치유, 22

평화, 48, 56, 62, 66

후기 성도, 8, 14, 30, 56, 58, 74,

76, 79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랍비와 비누 장인

**하** 나님을 믿지 않던 한 비누 장인에 관한 오래된 유대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비누 장인이 랍비와 같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나 악, 부패, 부정직, 불의, 고통, 기아, 그리고 폭력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군요. 묻고 싶습니다. 종교는 도대체 무얼 하는 거죠?” 랍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그 비누 장인과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흙과 먼지를 뒤집어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랍비가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아이들 좀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서 비누가 있었죠. 그런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나 더럽습니다. 대체 비누는 무얼 하는 걸까요?”

비누 장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님, 저 아이들이 더럽다고 비누를 닦하는 건 잘못이지 않습니까? 깨끗해지려면 비누를 써야 하니까요.”

랍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약 시대 선지자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마서 1:17)

이 단순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힘과 효력도 없는 종교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원리입니다.

신앙은 바람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은 뒤로 기대 앉아 머리를 끄덕이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신앙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원리이자 지침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심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는 값진 지혜에 대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야고보서 2:17 참조)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이 세상은 고사하고 한 개인의 삶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의 남성과 여성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신앙의 남성과 여성은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으며 사랑하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 애씁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며, 이웃과 친구들에게 힘을 다해 손을 내밀고 격려하며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동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행동이 결여된 종교는 상자 안에 모셔 둔 비누와 같습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잠재력이 담겨 있다 해도 원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된 종교를 가르칩니다. 그 참된 종교는



위: 우흐트도르프 회장과 그의 딸 안체가 그리스 아테네 근처의 난민 수용소를 방문했다.

곧 우리의 이웃을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돕는 일을 포함하는, 소망과 신앙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몇 달 전에 제 아내 해리엇과 저는 자녀들 몇몇과 함께 지중해 지역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의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얼룩진 나라에서 온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은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급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종교나 국적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지원과 희망이 전해지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관된 행동이 수반되는 신앙은 우리 마음을 친절함과 지혜와 이해심으로 채워 주며, 영혼에 평안과 사랑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선과 평화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인은 신앙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생활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야말로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입니다. ■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신앙이란 단순한 믿음의 표현 이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은 행동을 수반하며, 그런 신앙으로 생활할 때 개인의 삶과 가정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생활함으로써 축복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삶이나 다른 이들의 삶에서 본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따라 더 잘 생활할 수 있을지 기도로 인도를 구해 보라고 격려한다.

###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우** 흐트도르프 회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분은 “일관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신앙은 우리 ... 영혼에 평안과 사랑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려 할 때 우리는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매일 아침 기도으로써 주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던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나 시무룩해 보이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다가가서 도울 수 있을지 주님께 간구해 본다. 그런 뒤, 영의 인도를 느끼게 되면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패턴을 생활의 일부로 삼게 되면, 여러분의 충실하고 일관적인 행동은 여러분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것이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여러분이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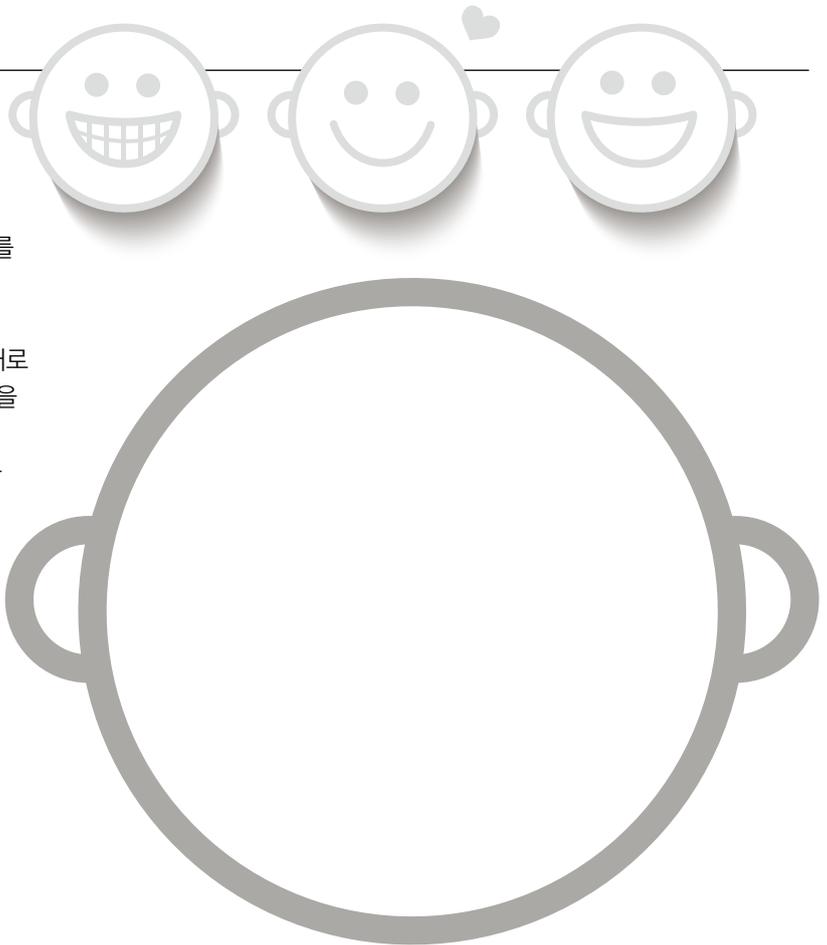


### 신뢰

**친** 구와 다음 활동을 해 본다. 이 활동을 하려면 친구를 신뢰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야 한다.

손에 볼펜이나 연필을 들고 눈을 감는다. 눈을 감은 채로 친구의 말을 듣고 오른쪽 얼굴 안에 눈, 코, 입, 머리카락을 그린다. 다 그렸으면 눈을 뜨고 그림을 확인한다. 얼굴이 잘 그려졌는가? 그 안에 색칠을 하거나 새로 얼굴 모양을 그리고 다시 해 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신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려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 신권의 맹세와 성약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하나님의 딸들이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어떻게 더 잘 준비되는가?

신권의 맹세와 성약이 우리 자매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신권의 축복과 약속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받으며,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충만한 복음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sup>1</sup>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서 오는 축복과 약속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던 셰리 엘 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신권의 충만함[은] 주님의 집에서 받는 가장 높은 의식에



신앙  
가족  
구제

담겨 있으며 이 충만함은 오직 남성과 여성이 함께함으로써만 받을 수 있습니다.”<sup>2</sup>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이렇게 요청했다. “교리와 성약 84편 33~44절에 있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성신이 놀라운 방법으로 신권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 주고 영감을 주고 들어 올려 줄 것임을 약속합니다.”<sup>3</sup>

조셉 스미스가 상호부조회에 준 가르침은 자매들이 “신권의 특권과 축복 및 은사를 얻도록” 자매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성전 의식은 신권 의식이[지만], 남자나 여자에게 성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그 의식들[은]

주님의 백성, 곧 남녀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교리와 성약 38:32]”<sup>4</sup>

### 추가 성구 및 자료

교리와 성약 84:19~40; 121:45~46; reliefssociety.lds.org



### 생각해 볼 점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통해 오는 약속된 축복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주

1. 엠 러셀 벨라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신권 권능”, 리야호나, 2014년 9월호, 36쪽.
2. 셰리 엘 듀,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년, 119쪽.
3. 린다 케이 버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권 권능”, 리야호나, 2014년 6월호, 21쪽.
4. 복음 주제, “신권, 성전, 및 여성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topics.lds.org.



젯세미네, 제이 커크 리릭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구주의 속죄:

## 참된 기독교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부활하여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당신 종교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sup>1</sup>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에 제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 곧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입니다.(니파이전서 11:16) 이로써 아버지는 아들을 지상에 보내시어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속죄 희생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는 참된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구주의 속죄는 왜 교회와 우리 삶에서 중심이 되는 복음 원리일까요?

### 신앙개조 제3조

신앙개조 제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문맥상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등급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지상에 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생, 곧 영원한 진보의 축복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고, 의식을 받고, 복음의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분만 그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은 모든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이었습니다.

###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셨다

예수님은 전세에서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서 느끼셨던 기쁨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7)

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누가복음 9:35)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풍요 땅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제3니파이 11:7)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실 때, 독생자에게 큰 사랑과 연민을 느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안과 힘을 주시고자 천사를 보내신 부분을 읽을 때면 특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누가복음 22:43 참조)

### 예수께서는 선택의지로 순종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진하여 생명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이사야 14:12; 교리와 성약 76:26~27) 천국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모세서 4:1~2; 또한 아브라함서 3:27 참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매우 사랑하셨기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택의지를 발휘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한복음 10:15, 17~18)

구주께서 원하셨다면, 천사의 군단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본향에 계신 아버지께 곧장 데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선택의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지상에서의 사명을 이루셨고, 끝까지 견디셨으며, 속죄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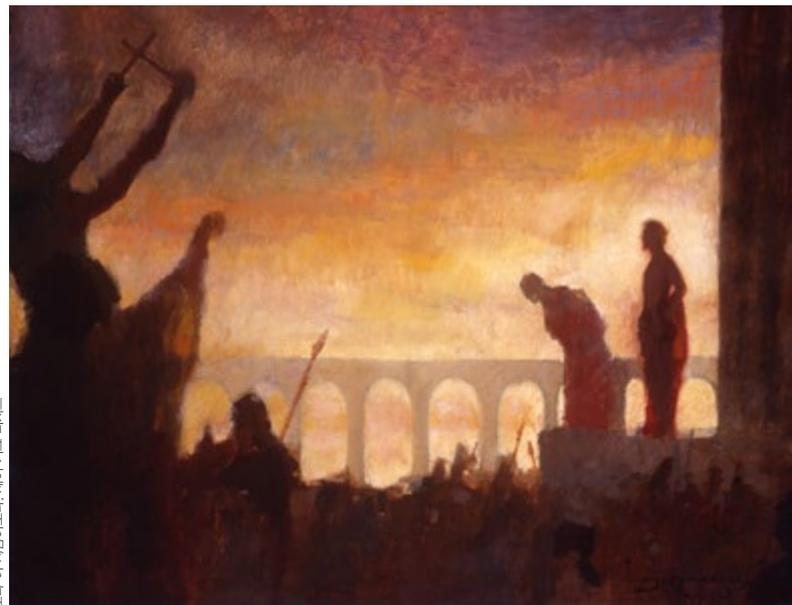
예수님은 지상에 오기를 바라셨고, 그럴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

### 예수께서는 예임된 분이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였다고 가르쳤습니다.(베드로전서 1:19~21 참조)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과 그분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크나큰 신앙이 있었기에 놀라운 시현으로 구주의 탄생과 죽음, 승천, 그리고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에녹이 인자가 참으로, 육신으로 오는 날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제이 커브 리처즈

보았고 그의 영혼이 기뻐하여 이르되, 의인은 들리웠고,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도다. ...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보라 하는지라, 그가 보고, 인자가 사람들이 하는대로 십자가 위에 들리운 것을 보았더라.

또 그가 큰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신음하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일어나 인자의 오른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을 쓰더라. ...

에녹이 보니, 인자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지라 ...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은 천 년 동안 의롭게 땅에 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는 날을 보았더라.”(모세서 7:47, 55~56, 59, 65)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약 75년 전, 앰울레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범법을 짚어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오실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엘마서 34:8)

### 예수께서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분이셨다

필멸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하늘 아버지께 생명의 권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희생을 이룰 유일한 분이셨습니다.(요한복음 5:26 참조) 이 생명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무덤이 힘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중재자요 부활의 주인, 곧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불멸을 가져다줄 방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덕분에 우리는 부활하여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 예수님은 기꺼이 원죄를 속죄하셨다

신앙개조 제2조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우리는 선택의지를 발휘하여 신앙을 행사할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면 회개할 수 있으나, 속죄가 없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모세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골고다의 우울한 날, 제이 커크 리저즈

아들이 원죄를 속죄하였고, 이로써 부모의 죄가 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창세로부터 온전함이니라 하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더라.”(모세서 6:54)

니파이후서에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는 죽음이 만인에게 임한지라,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락의 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함이라. 또 타락은 범법의 연고로 왔으니,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그런즉 반드시 무한한 속죄라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한 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계속되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는 필연코 누워 썩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니파이후서 9:6~7)

###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다

구주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교리와 성약 45:4)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 없고 완전한 존재셨습니다. 구약에서의 희생은 속죄 희생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우리 주님이자 구속주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 삼아 피의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구주는 순결하시기에 경전에서 종종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일컬어집니다.(예를 들어 요한복음 1:29, 36; 니파이전서 12:6; 14:10; 교리와 성약 88:106 참조)

베드로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는다 고 가르쳤습니다.(베드로전서 1:19)

###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

다음 성구에는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돌이켰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모사이야서 14: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로마서 5:8, 10~11, 19)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태복음 8:17)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나니,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 자비는 속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또 속죄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나니, 이같이 그들이 그의 면전으로 회복되어, 그들의 행위대로 율법과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되느니라. ...

또 이리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예비된, 그의 크고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나니, 이리하여

사람들의 구원과 구속과 또한 그들의 멸망과 비참이 이루어지느니라.”(앨마서 42:23, 26)

### 예수께서는 끝까지 견디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에서 시험과 고통, 희생과 시련을 견디신 데 그치지 않고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도 괴로움을 견디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그분은 지상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끝까지 견디시어 속죄 희생을 완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우리는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 사실을 배웁니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19)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들이 그를 어디로 옮겼나이까? 제이 커브 리버즈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7:4)

그런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신성을 지켜내셨기에 속죄 희생을 이루고 끝까지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과 함께 제정하신 대로, 그분의 몸과 피의 상징인 떡과 물이라는 상징물로써 구주의 속죄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누가복음 22:19~20)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요한복음 6:51)

"세상의 생명"이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매주 자신과 가족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지상에 보내시어, 즉 낮추어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으며, 모든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한복음 14:6~7)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도마에 의해서 말라, 제이 커크 리처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1서 4:10)  
화목이란 화해 또는 진정을 뜻합니다.

### 결론

지상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활하게 되지만, 우리는 충실함, 선택의지, 순종, 회개를 통해 승영의 축복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비는 공의와 더불어 주어지며, 자비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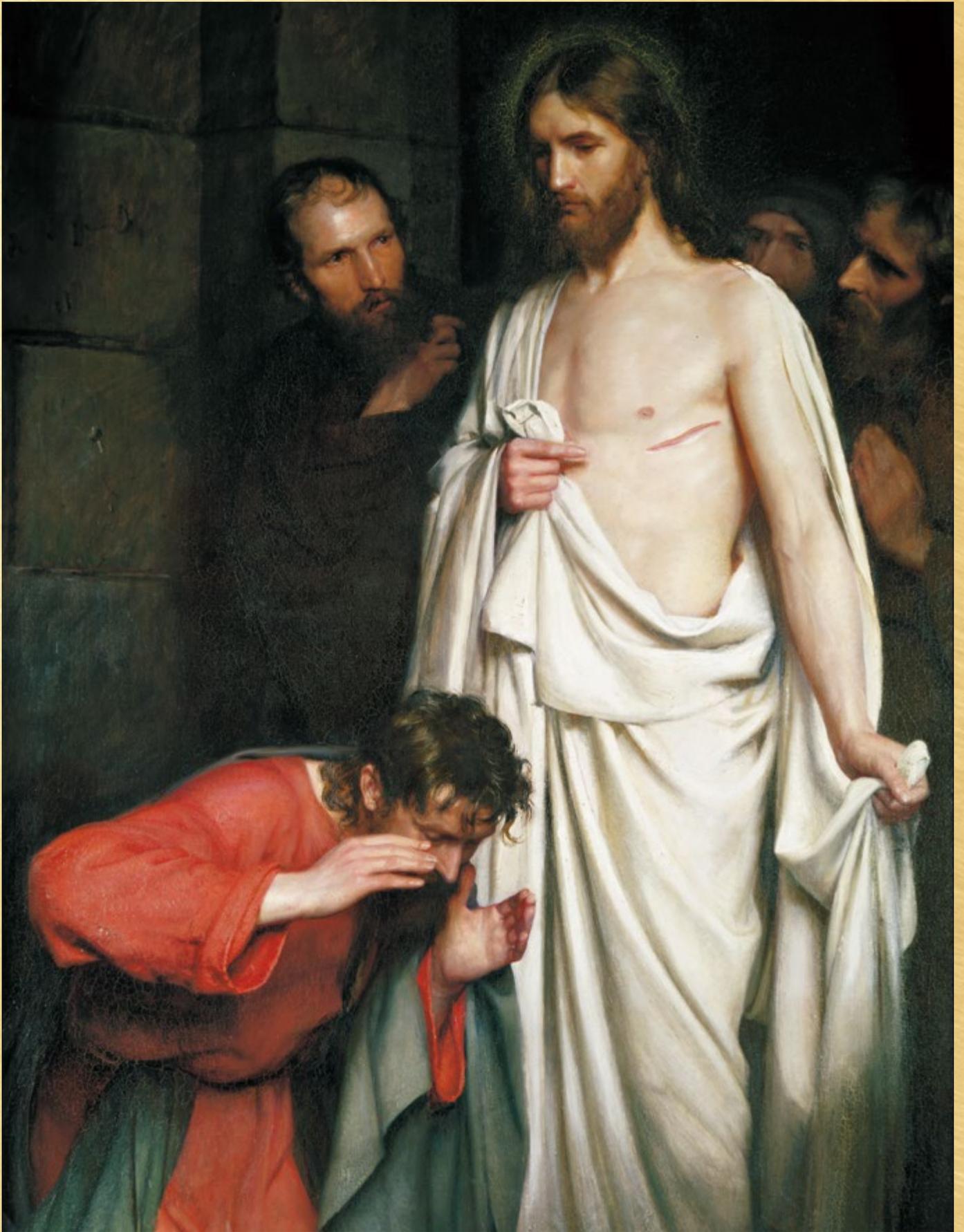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서 따르고 받아들일 것을 선택했기에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며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연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 곧 구원의 계획입니다. ■

2008년 6월 24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신입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 "The Atonement[속죄]"에서 발췌.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육신에 관한 진리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어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한복음 19:30)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육신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영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한 그 육신을 떠난 것입니다.(엘마서 7:12~13 참조) 영이 떠난 그 육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세마포로 감싸진 뒤 무덤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온전히 장사 지낼 준비를 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육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빈 무덤의 발견은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도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적적인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완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본 이들이 그분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사도들에게 그분의 몸을 만져 보라고 하심으로써 그분이 영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36~40

참조)<sup>1</sup>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들기도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42~43 참조)

그런 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박해를 접했는데, 그런 박해 중 일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것임을 가르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사도행전 4:1~3 참조)

그 당시 그분의 교회에서 그러했듯,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했듯이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sup>2</sup>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생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은 소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려 할 때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강조되는 몇 가지 진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육신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멸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시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숙한 개념으로서 성경에 그 뿌리를 둡니다.<sup>3</sup> 그러나 많은 신학 및 종교 철학적 전통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몸도 자질도 감정도 없[는]” 존재라 여기기도 합니다.<sup>4</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육신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질은) 악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것이며, 반면 영, 정신, 또는 개념은 실존하는 궁극적인 존재로서 참된 실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되었을 때, 그 사실은 영광스러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한복음 14:9)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구주께서 완전한 불멸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후 한층 더 참된 진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교리와 성약 130:22)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육신의

본질과 특성은 밝혀졌습니다. 후에 조셉 스미스가 설명했듯이 “몸 또는 지체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는 살과 뼈로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sup>5</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육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왜 인류의 구속주께서 사망의 권세와 무덤으로부터 그분의 육신을 구속하시고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다시는 영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필멸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sup>6</sup>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특질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에, 세상의 구속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 전능, 자비심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sup>7</sup>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권능과 지식과 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담긴 그분의 지혜와 사랑의 증거이자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게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창세기 1:27)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바로 그 시각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요한복음 20:17, 강조체 추가)

구주께서는 하나님과 인류가 그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 영의 그것과 유사하며,<sup>8</sup>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훌륭한 은사이며, 육신이 있기에 많은 것이 가능해진다**

구주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와 같은 영원한 존재에게 형체를 가진 육신은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셨듯이, “원소는 영원하며, 영과 원소는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93:33) 이 불가분한 결합은 영과 육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불멸의, 썩지 않는, 영광스럽고도 완전한 육신이 되게 합니다. 이런 육신만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육신을 가진 후 영과 육이 분리되어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이 자신들의 육체로부터 ... 떠나 있음을 속박으로 여[깁니다.]”(교리와 성약 138:50; 또한 교리와 성약 45:17 참조)

우리가 가진 필멸의 육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또한 신성한 선물입니다. 전세에 있던 영이 이 지상에 오게 될 때 그들은 육신으로 “더하여[집니다.]”(아브라함서 3:26)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육신을 갖기 위해, 그리고 해의 왕국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이 순결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원리에는 육신을 갖는 것이 포함됩니다. 악마는 육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sup>9</sup>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전세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폭넓고도 깊ی 있으며, 강도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해 줍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 진리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역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는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 더욱 증대됩니다. 필멸이라고 하는 이 경험의 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다정함, 사랑, 친절, 행복, 슬픔, 낙담, 고통,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전에 ‘육체를 따라’라고 묘사되어 있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배워야 할 교훈과 겪어야 할 경험들이 있습니다.”(니파이전서 19:6; 앨마서 7:12~13)<sup>10</sup>

이에 더하여,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듯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sup>11</sup>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sup>12</sup>

궁극적으로, 부활한 완전한 육신이라는 은사는 우리가 영원토록 사탄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을진대, “우리의 영은 ... 악마 ... 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은 필연 그와 같이 되었으리니, 우리는 악마가 되며 악마에게 속한 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짓의 아비와 함께 머물며 그 자신처럼 비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8~9)

**우**리가 가진 필멸의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신성한 선물입니다. 영이 이 지상에 오게 될 때 그들은 육신으로 “더하여[집니다.]” (아브라함서 3:26)



## 영과 육은 서로 적이 아니다

비록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과 육이 각각 본질적으로 다르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실체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물질적 물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영은 물질이니라. 그러나 이는 더욱 미세하거나 순수하여, 보다 더 정결한 눈으로써만 식별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를 볼 수 없으나, 우리 몸이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모두 물질임을 보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31:7~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태를 통해 영과 육이 완전하게 결합된 상태를 보여 주셨으며, 이로써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15) 현세에서의 삶 동안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생각하는 바가 영에 속”할 수 있도록 애쓰며(니파이후서 9:39)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모사이야서 3:19) “[우리의] 모든 걱정을 굴레 씌우려 노력합니다.(앨마서 38:12) 그러나 그것이 영과 육신이 서로 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듯이, 육신은 경멸의 대상이나 초월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잘 다루고 통제하여 변형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 필멸의 육신으로 영위하는 삶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생이 시험이라는 관념은 이생의 전과 후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를 생각해 볼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영으로서 생활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어서 불멸의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필멸의 육신을 입고 시험받는 이

시간이 임의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능력과 욕구, 열정이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해의 왕국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능력을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 증명합니다.] 육신이 영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되도록 육신에 굴레를 씌울 수 있습니까? 현세와 영원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신성한 권능을 얻을 만큼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악을 극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입니다.]’[앨마서 3:26] 이것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불멸의 육신을 가진 그 영광스런 존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sup>13</sup>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경험하는 것들과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배우게 되었듯이,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립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0:2)

##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

텅 빈 무덤이 목격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 즉 [우리가] 계속 충실하다면, … 잃어버린 모든 것을 [부활의 때에]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14</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태를 통해 영과 육이 완전하게 결합된 상태를 보여 주셨으며, 이로써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15)



**텨** 빈 무덤이 목격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앞날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초기 사도들은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져 볼 수 있었기에 그분의 부활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육신의 병을 고치신 것 같이(누가복음 5:23~25 참조), 그분께 육체적인 사망을 극복할 권능이 있음을 나타내는, 유형의 증거인 부활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께 영적인 사망을 극복할 권능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침을 통해 주신 약속, 즉 죄에 대한 용서, 이생에서의 평안, 그리고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영생은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왔으며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17) 그러나 그분께서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며],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모로나아서 7:4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필멸의 성역 동안 사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망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해의 왕국의 영”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는 “육체였을 때와 같은 몸을 받”을 수 있으며 “해의 영광의 일부로 인하여 살리심을 받아] 그 때 그와 똑같은 것 곧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8:28~29) 그분께서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우리가 부활한 육신에 깃드는 충만한 기쁨을 포함하여 이 해의 영광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권능, 즉 그분의 속죄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

**주**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대륙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수천 명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씩” 나아와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느꼈음을 증거하게 하셨다.(제3니파이 11:14~15; 18:25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9쪽.
3. 창세기 1:27; 출애굽기 33:11; 사도행전 7:56.
4. 이와 유사한 개념이 초기 기독교 교리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특정 표현은 영국 국교회 제39번 조항에

나온다.

5. 가르침: 조셉 스미스, 42쪽.
6. 제프리 알 홀런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42쪽.
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3쪽.
8. 육신을 입으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분의 영의 몸도 사람의 형상이었기 때문이다.(이더서 3:16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3쪽.
1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1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3쪽.
12. 가르침: 조셉 스미스, 214쪽.
1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1쪽.
14. 가르침: 조셉 스미스, 51쪽.

# 죽게 노래

진심을 담아 ♩ = 44-48

작사: 스티븐 케이 존스  
작곡: 마이클 에프 무디

*mp*

오른손

1. 우  
2. 육  
3. 그

5

리 — 위 해 그 분 오 셧 네 모 든 영 혼 기 꺼 이  
신 — 입 고 생 활 하 셧 네 그 래 서 모 든 것 이  
분 께 서 도 우 리 들 처 럼 슬 품 과 질 고 를 겪

8

*rall.*

도 우 시 네 그 어 면 삶 도, 그 어 면 고 통 과  
해 하 시 네 우 리 가 겪 는 모 든 고 통 알 고  
으 셧 다 네 겸 손 한 자 와 그 분 을 따 르 는

11

*a tempo*

슬 품 도 그 분 은 치 유 하 시 네 주 께 오  
상 처 와 비 통 함 치 유 하 시 네 주 께 오  
충 실 한 자 의 죄 용 서 하 시 네 주 께 오

2



14

라  
라  
라

그 분 께 더 가 까 이 께 온

17

유 하 고 께 손 한 마음 지 니 신 주 께 오

20

1, 2. 3.

라 2. 육 3. 그 주

23

rall.

께, 주 께 오 라

© 2016 by Steven K. Jones and Michael F. Moody.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 희망과 치유로 건너가는 다리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적절한 도움을 통해  
그들이 가슴 깊이  
바라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나논 텔리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미국 텍사스 주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서 협곡 너머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협곡 너머로 건너가면 큰 행복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건너갈 방법을 찾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쌓여 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 도구들을 잘만 활용하면 협곡을 건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다리를 만드는 법을 모른다면 그 도구들은 무용지물일 뿐이며 여러분은 낙담하고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리를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지식과 이해는 확장될 수 있고 결국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정서적 또는 정신적 고통의 심연을 건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인도를 제공하는 일을 해 왔다. 그렇게 내가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를 지닌 사람들은 바로 성적 학대 피해자였다. 나는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데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구주를 통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인 평안을 찾는 모습도 보았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 왜 성적 학대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가?

학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삶은 암울함과 자기 회의 및 기타 부정적인 정서적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은 왜 성적 학대가 이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는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성적 학대라는 끔찍하고 악랄한 행위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품위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스럽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며, 가장 때서운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남성이나 여성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적 학대자는 그런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되며,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sup>1</sup>

생식과 출산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스럽고 신성한 능력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출산의 능력은 영적으로 중대합니다. …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들에게 있는 창조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sup>2</sup> 그렇기에, 이 성스러운 능력의 오용과 남용이 “가장 때서운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자 “가장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됨은 당연한 일임에 틀림없다.

## 받은 상처를 이해한다

성적 학대란 상호 동의 없이 한 사람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접촉 또는 비접촉 행위 및 교류이다. 대부분의 경우,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낮아진 자존감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생활하게 된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종종 성적 학대와 그 영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타인의 비난이나 판단에 의해 더 심화되기도 한다. 어떤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학대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또 어떤 피해자들은 피해자도 죄를 지은 것이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도 한다.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 시기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 중 내가 상담을 진행한 많은 이들은 “그냥 털어 버려”,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해”,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 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조언을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듣게 될 경우, 피해자는 치유와 평안으로 인도되기보다는 상황을 더 숨기려 하고 이를 더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다.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감염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정서적인 상처 역시 잊어버리려 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대를 받는 동안 시작된 혼란과 그 결과로 야기된 정서적인 상처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고, 결국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 학대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럴지라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행위에 빠지게 되거나 정서적인 고통을 겪는다.

한나(가명)는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겪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한나도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는 지독히 못난 사람이라 여기며 자랐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 돕고 봉사하는 데 쓰며 살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한나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와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끔찍한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거절당하는 일에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도 어려워했다. 한나는 그림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으나 자신의 작품을 향한 비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그림을 접었다.

무려 50년 이상 동안, 그녀의 하루하루는 무력감, 무기력함, 두려움, 분노, 혼란, 수치심, 외로움, 소외감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다

구주께서는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그렇게하신 것이었다.(엘머서 7:11~12) 그분이 겪으신 고통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함이기도 했다.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축복하시며 우셨다.(제3니파이 17장 참조) 오늘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나는 구주께서 성적으로 학대받은 자들을 보고 우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을 거라 믿는다. 비록 그분이 물리적으로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영은 우리와 함께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고, 평안을 느끼며, 용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다.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겪어온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다는 개념은 거의 불가능하게 들릴 것이다. 종종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살아가는 학대 피해자들도 있다. 웃는 얼굴로 기꺼이 남을 도우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는 가운데 그 상처를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서적인 치유 과정을 육체적인 부상을 입은 후 치유하는 과정과 비교해 보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본다.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는 대신, 여러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 고통이 잦아들 때까지 절뚝거리고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도 걸을 때마다 약간의 통증은 남았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 고통을 없애고 싶어졌고,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어긋난 채 붙은 뼈를 다시 맞추고, 잘못 자란 부분은 제거하며, 깁스로 고정시키고, 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을 물리 치료사에게 보낼 것이다.

학대에서 치유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학대 피해자는 먼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실재한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보통 피해자들은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거나,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관계에 선을 긋거나, 성적인 행위를 통해 위안을 찾거나 (외설물이나 자기 자극 행위를 포함하여)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하거나, 또는 이와는 반대로 성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고 피하게 될 수 있다. 학대 피해자들 중 이런 성적인 행위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수치심으로 인해 부모, 신권 지도자, 또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일어난 학대와 그런 행위의 상관 관계, 즉 그들이 받은 학대로 인해 그들이 그런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음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들은 양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들은 과도하게 종교적이 된다.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덮기 위해 그들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행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어떤 피해자들은 결코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큼 합당해질 수 없다고 여기고 더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한다.

## 교리와 성약 123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 주 리버티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교회에 보내는 서한을 기록했는데, 이는 교리와 성약 121~124편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박해자와 관련[한] … 성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123편 소개) 그는 핍박당하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한 학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고 말하지 않았다. 123편에 나오는 권고가 학대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처받고 두려움과 슬픈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된다. 종종 이런 치유 과정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에게 문의하여 여러분 지역에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하고, 구주의 삶과 그분의 속죄에 대해 더 배우며, 정기적으로 신권 지도자와 만나는 것이다. 신권 지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성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고 그들이 하나님과 구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짐을 덜어 줄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는 최근에 이렇게 가르쳤다. “치유의 과정은 쉽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합당하게 성임된 신권 지도자들과 상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와 적절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때, 적절한 경계를 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sup>3</sup>

한나의 경우, 그녀는 매일의 생활에서 큰 어려움과 불편을 느꼈기에 도움을 구했다. 한나는 자신이 평안을 찾고 삶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다. 기도와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나는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고, 상담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어둠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자신이 홀로 감내해 오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한나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찾게 되었다.(요한복음 14:27 참조) 그녀가 찾은 평안과 위안과 더불어, 새로운 소망과 용서할 힘도 생겨났다.

### 용서의 필요성

용서라는 개념은 보통 학대 피해자들에게 힘든 개념이며, 종종 그들은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들이 용서라는 개념을 학대 가해자를 처벌에서 면하게 해 주는 것이나 그들이 가한 행위를 더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피해자에게 타당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는 용서하라는 계명이 주어졌지만(교리와 성약 64:10 참조), 피해나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학대 가해자를 온전히 용서하기 전에

먼저 치유가 시작되어야 한다.

학대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은 물론경에 나오는 다음 권고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야곱은 마음이 청결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시, 너희의 멸망을 피하는 자들 위에 공의를 내려보내실 것이다.”(야곱서 3:1) 공의에 대한 요구와 보상받을 권리는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를 평안으로 바꿔 주실 수 있다.

하나 역시 결국 공의를 적용해 판단할 부분은 주님께 맡기기로 했으며 그 대신 전에는 결코 느껴 보지 못한 평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그 가해자를 보게 될까 봐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한나는 치유의 과정에서 힘든 정서적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그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그가 늙어 가는 모습에 측은한 마음까지 느끼게 되었다.

###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리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이렇게 언급했다. “완전한 치유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불의하고 부당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능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줄 권능을 지니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sup>4</sup>

사탄은 그 자신이 비참한 운명에 처했기에 사람들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매고 싶어 한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 고통은 진실로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 것이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다.]”(니파이후서 2:25)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시련을 견디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다.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에 구주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실로 축복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은 더욱 겸허해진다.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부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길 바란다.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분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러한 기적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

### 주

1. 고든 비 헝클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리아호나*, 1995년 1월호, 54쪽. 강조체 추가, 번역 수정.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42쪽.
3. 캐롤 엘 스티븐스, “위대한 치유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1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8쪽.

## 지도자, 가족, 친구들에게 주는 권고

학대 피해자가 여러분을 충분히 신뢰하여 그들이 받은 고통과 학대를 털어놓는다면,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사랑을 보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을 표한다. 나와 상담을 진행한 피해자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감독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가해자를 용서해야 할 필요성이 먼저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만 중요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는 감독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어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영적 치유의 기회를 잃게 된다.

용서는 치유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먼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해 주며,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줄 때, 피해자에게 치유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ministering.lds.org](http://ministering.lds.org)를 방문하여 “학대: 피해자들을 도움”을 읽어 보고 참고할 수 있다.

# 오래된 가족 앨범:

가족에 얽힌 이야기의 힘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은 내 안에 살아 숨 쉬며 끊임없이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암네리스 푸스카수

**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어느 여름날 아침,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날이 밝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증조할아버지는 푸른 계곡과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루마니아의 어느 언덕에 사셨다. 집 밖으로 나가 아침 이슬에 젖은 풀숲에 앉아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 한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그 생각이 또 떠오른 것이다. 많이 공부한 만큼 호기심도 많고 맘씨도 좋은 증조할아버지를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아하고 존경했다.

할아버지가 살던 마을은 오래된 올트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루마니아 마을

이미지의 원형과도 같은 곳이었다. 마치 동화어나 나올 법한 풍경에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그 마을은 언제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유물과 유산을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겐 전해 줄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이 트자, 할아버지는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불러 놓으시고는 그동안 당신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며 진짜 장례식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행연습을 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날짜를 정하고 관을 사고 목사와 전문 문상객을 고용했으며,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에 맞추어 장례식에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준비하셨다. 여행연습을 하기로 한 날이 되었다. 마을 한복판에 장례식 추도 만찬에 쓰일 식탁이 차려졌고 가족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었다. 목사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바깥이 잘 내다보이도록 베개의 위치를 바꿔 놓은 관에 누워 계셨다. 그렇게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마을 사람 모두가 만찬에 초대되었으며 증조할아버지는 소원대로 본인의 장례식에서 춤을 추셨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20년을 더 사셨고 그러는 동안 종종 아직도 관이 몸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곤 하셨다.

**단순히 이름과 날짜가 아니다**

나는 증조할아버지를 한 번도 뵈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좋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같이 우리 형제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조상들이 어디서 오셨고, 성품은 어떠하셨으며, 그분들이 어떤 가치관과 꿈, 소망으로 사셨는지 등을 들려주셨다. 매주 일요일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세대를 오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울음이 섞여 세월의 흐름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수 놓인 커다란 그림이 완성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분들은 그저 뒷면에 이름과 날짜가 적힌 오래된 사진 속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분들은 우리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였다. 우리에게 그분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고난과 실의로 괴로워하며, 성공과 실패를 겪었던 실존 인물들이었다. 비록 그분들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살아 있고, 그분들이 남기신 유산은 여전히 빛나며, 그분들의 얼굴은 사랑으로 여섯 세대의 마음을 엮어 주는 오래된 가족 앨범 속에서 미소 짓고 있다.

### 힘겨운 시기에 얻은 힘

내가 열아홉 살 무렵, 부모님을 비롯한 내 직계 가족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나는 물려받은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터였다. 그러나 시간과 자연재해, 심지어 죽음조차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낸,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그분들이 부지런했던 덕분에 우리의 마음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는 어떤 필멸의 고난도 이겨 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으며, 힘겨운 상황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나는 얼마나 슬펐던지 과연 내가 그분들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휘장 너머에 계신 조상들의 영향력을 느꼈고, 그 덕에 나는 죽음 너머의 삶과 성전 의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간증이 생겼다.

비록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 번도 뵈는 적이 없지만, 나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들 때마다 그분들의 눈에서 나를 마주한다. 나보다 앞서 세상에 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내 됴됨이의 밑거름이 되었고 내 삶을 인도해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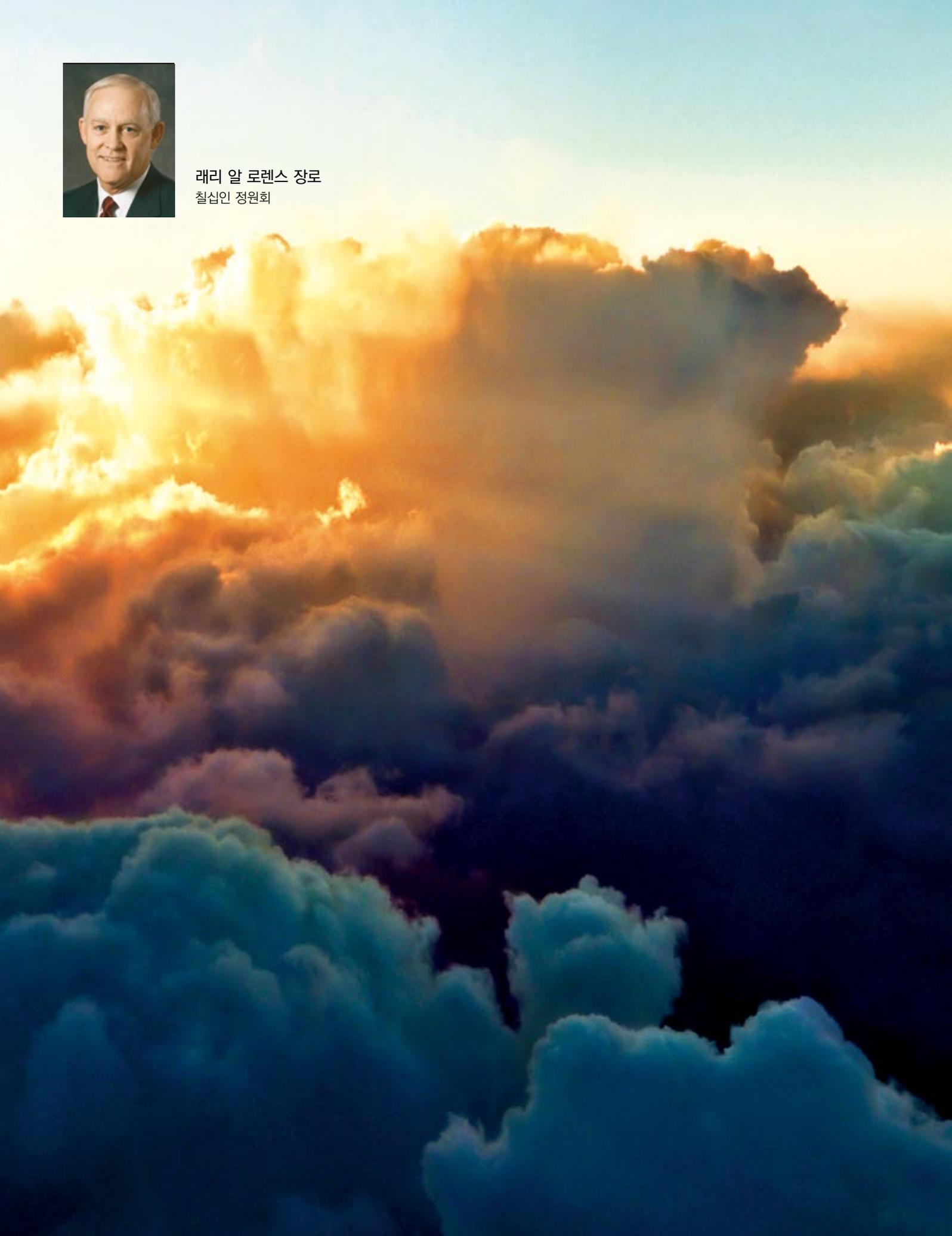
때때로 나는 휘장 너머에 있는 내 가족들과, 그들이 내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치른 희생을 생각한다. 또한, 언젠가 다시 가족이 함께할 길을 열어 주는 성전 의식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한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려 그 값을 치르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뉴욕 주에 산다.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천국에서 시작된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전쟁의 열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 제 뉴스를 챙겨 보는 분이라면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5:26) 다행히도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충분히 전쟁을 겪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전세에서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서 악의 군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천국 전쟁 당시에는 우리가 아직 육신을 받지 못했던 터라 칼, 총, 폭탄 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현대의 어느 전쟁 못지않게 치열했으며 수십 억 명에 이르는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말, 생각, 논쟁, 설득 등을 무기로 싸웠습니다.(요한계시록 12:7~9, 11 참조)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을 겁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워.” “다시 깨끗해지는 건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사탄은 구주를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의 거짓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류를 위한 도덕적 선택의지와 위대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고자 그 희생을 치를 것을 자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 돌아와 마침내 하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1~4; 아브라함서 3:27 참조)

우리는 천국 전쟁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됐던 또 한 가지는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여호와와 지지자들이 그분을 강력하게 증거한 것이었습니다.(요한계시록 12:7, 11; 교리와 성약 107:54 참조) 전세에서 아담은 미가엘로 불렸으며, 사탄은 “빛을 지닌 자”라는 뜻에서 루시퍼로 불렸습니다.<sup>1</sup> 암흑의 왕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들릴 테지만(모세서 7:26 참조), 경전에 따르면 떨어져 나가기 전 사탄은 “하나님 앞에 권세를 지닌 한 천사”였습니다.(교리와 성약 76:25~28 참조)

그토록 큰 지식과 경험을 지녔던 영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교만했던 탓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고 싶었기에 하늘 아버지를 모반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교만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의 교만한 욕망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sup>2</sup> 들어 보셨겠지만, 사탄은 사람의 선택의지를 말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총애를 잃게 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반항한 죄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교리와 성약 76:25; 모세서 4:3 참조)

우리는 왜 악에 맞서 싸웠을까요? 우리가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루시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이사야 14:12~14; 니파이후서 24:12~14 참조) 사탄의 배반으로 하늘 부모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경전에 따르면,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다고 합니다.(교리와 성약 76:26)

격렬한 싸움 끝에 미가엘과 그가 이끈 군대가 승리를



거렸습니다. 천군의 3분의 2가 아버지를 따를 것을 선택했습니다.(교리와 성약 29:36 참조) 그러나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곧바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보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보내진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속죄 희생을 치르실 이곳 지상이었습니다.(요한계시록 12:7~9 참조)

사탄의 군대는 왜 지상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곳에서 시험을 겪는 사람들에게 반대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행을 허락받았습니다.(니파이후서 2:11 참조)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복천년이

지나면 사탄과 그의 군대는 영원히 쫓겨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머물 날이 정해져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결박당한 채 천 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1~3; 니파이전서 22:26; 교리와 성약 101:28 참조) 그날이 다가올수록 악의 세력은 최대한 많은 영혼을 사로잡고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위대한 시현 가운데 천국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탄이 인류를 유혹할 목적을 띠고 지상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현을 본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요한계시록 12:12)

그렇다면,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음을 아는 사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사도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기록했습니다.(베드로전서 5:8)

사탄이 그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절대 몸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아내와 가족을 갖지 못함은 물론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기에 모든 남자와 여자가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7)

사탄은 모든 사람을 목표물로 삼지만, 그중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잠재력이 가장 큰 사람을 특히 주시합니다. 그는 승영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몹시 시기합니다. 경전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6:29)

천국에서 시작된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전쟁의 열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교회가 확산되고 번영하고 성장하여 지상의 나라들에 복음이 퍼져 나가는 만큼 사탄의 힘도 커질 것입니다.”<sup>3</sup>

전 세계 사회 곳곳에 악이 스며드는 모습에 비추어,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영 회장은 악을 물리치려면 적의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사탄이 확신하는 네 가지 전략과 그 전략을 이길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사탄의 전략

### 1. 유혹. 사탄은 아주 대담하게 사람의 머릿속에 사악한

생각을 주입합니다. 물문경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에게 불결하고 불친절한 생각을 품도록 속삭이고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중독성을 가진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이기심과 탐욕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차리기를 바라지 않기에 자신은 “악마가 아니니 ... 악마란 없”다고 속삭입니다.(니파이후서 28:22)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는 그야말로 사탄을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주께서 유혹의 산에서 겪으신 일이 기록된 신약전서의 기사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두 단계 방어책을 쓰셨습니다. 즉, 먼저 사탄에게 떠날 것을 명하셨고, 다음으로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하신 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4:10)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태복음 4:11) 구주께서 쓰신 방어책은 매우 효과가 컸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의 전기는 그랜트 회장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악을 물리쳤는지를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랜트 회장은 자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을 알아차리자,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사탄이여, 입을 다물라!”<sup>4</sup>

우리는 유혹을 느낄 때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야고보서 4:7)

구주께서 쓰신 방어책의 다음 단계는 경전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경전 구절을 암기하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경전 구절은 영적인 탄약의 무기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이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계명을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출애굽기 20:8; 누가복음 6:27; 교리와 성약 121:45) 경전의 권능은 사탄을 떨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가슴에 영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유혹에 맞서 우리를 강화해 줍니다.

**2. 거짓과 속임수.** 경전은 사탄을 일컬어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니파이후서 9:9)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넌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넌 할 줄 아는 게 없어”와 같은 속삭임이 들려오더라도 사탄을 믿지 마십시오.

사탄이 자주 하는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한 번씩은 해 봐야지, 다 경험이니까. 한 번만 해 보는 거야. 그렇다고 큰일 나지 않아.” 사탄은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치졸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숨기려고 합니다.

사탄이 쓰는 또 다른 효과적인 거짓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괜찮아.”입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에게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별의 왕국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탄이 거짓을 말하겠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말해 주는 영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은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껏 “속이는 일에서 최고” 가는 존재였습니다.<sup>5</sup> 사탄은 주님이 주신 모든 참된 원리들을 위조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조품은 진품과 다릅니다.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지만, 흰색을 위조하면 빛바랜 흰색이나 회색이 될 것입니다. 위조품이란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거기에는 진품과 닮은 면모가 숨어 있습니다. 위조품은 진품을 변형한 것이지만, 위조 화폐가 그렇듯 쓸모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탄이 신앙을 위조하여 만든 결과물 중 하나는 미신입니다. 그가 사랑을 위조한 결과물은 욕정입니다. 사탄은 사제술이란 이름으로 신권의 모조품을 만들며, 주술이나 마술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해주는 영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은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동성 결혼은 결혼의 위조품일 뿐입니다. 동성 결혼에는 자손도 승영도 없습니다. 사탄은 위조품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위조품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위조품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교리와 성약 50:23)

**3. 분쟁.** 사탄은 분쟁의 아버지입니다. 구주께서는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제3니파이 11:29)

사탄은 수세기 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분쟁이 생기면 주님의 영은 떠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인을 설득하여 아벨을 죽이게 한 것을 시작으로 형제들을 자극하여 다툼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는 또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와드의 회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선교사 동반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선한 사람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볼 때, 쾌재를 부릅니다. 그는 가족이 안식일에 교회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월요일 밤 가정의 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언제든 부부가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로 계획하고 있을 때 논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가 분쟁을 일으키는 시기는 예측가능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화해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누가 시작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흔히 분쟁은 흠을 잡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셉 스미스는 “악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초점을 둘 때 우리가 매우 의롭다고 아침”한다고 가르쳤습니다.<sup>6</sup> 그렇게 보면, 자신이 의롭다고 단정 짓는 행위는 진정한 의로움의 위조품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을 흠잡고 지적하는 일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배도의 첫 단계는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도들을 경고했습니다.<sup>7</sup>

물론을 반대하는 글 대부분은 조셉 스미스라는 인물에 대한 거짓을 근거로 합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선지자의 말에 그 진위가 달려 있으므로, 악은 조셉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악은 회원들이 회복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의심하게 하기 위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신권 형제들 가운데는 선지자에게 끝까지 충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이가 여럿 있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으로 파문당했던 라이먼 이 존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후에 교회를 떠난 것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믿을 수만 있다면 오른손이 잘려 나가는 고통쯤은 참아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던 때, 저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밤이면 기분 좋은 꿈을 꾸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운이 솟았습니다. 밤낮으로 행복했으며, 그보다 더 기쁘고 평화롭고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슬프고 비참할 뿐입니다. 그보다 행복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sup>8</sup>

존스의 말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경고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개종자입니다. 저는 스물세 살 때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의과 대학에 다니던 청년 독신 성인 시절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구도자가 진리를 찾을 때 사탄이 어떤 식으로 구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단념하게 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내내 후기 성도 친구들의 모범을 보며 자랐습니다. 후기 성도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지만, 제가 물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교회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있기 한참 전이라, 저는 공공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문경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셨던 리그랜드 리차즈(1886~1983) 장로님이 쓰신 기이한 업적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큰 소망을 품고 이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이 책들은 제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기 시작할 때 쯤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려면 교회 비평가들이 쓴 글도 읽어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서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선지자 조셉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책을 찾았습니다.

반물론 서적을 읽자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회를 알아보도록 저를 이끌어 주었던 감미로운 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운 나머지 진리를 찾는 일을 단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물론 서적을 읽으며 응답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고교 시절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있는 유타 주로 저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다니며 여행하면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가 그녀가 다니는 교회를 비밀리에 알고 있다고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에 가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자 친구는 약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제가 조셉 스미스와 회복에 대한 진리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템플스퀘어에서 봉사하는 자매 선교사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들은 제가 가진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간증 덕분에 저는 “[제] 의혹을 ... 의심”<sup>9</sup>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간증의 힘과 가치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 친구도 제게 간증을 전했고, 교회가 참된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애리조나까지 먼 길을 운전해

사탄은 모든 사람을 목표로 삼지만,  
그중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잠재력이  
가장 큰 사람을 특히 주시합니다.

돌아오는 동안, 저는 난생처음 신앙을 발휘하여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모로나이 10:4) 그리고 돌아오는 길 어디쯤에선지, 제 차가 온통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빛은 어둠을 떨쳐 낼 수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자 사탄은 마지막 투쟁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 제 침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례받았고, 가족들도 점차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가족 역사를 탐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남동생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태 주로 초대했던 그 친구는 이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4. 좌절.**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도 충실한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때 이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저는 좌절감이 들 때면 저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고 악을 물리칠 힘이 솟습니다.

벤슨 회장님은 여러 해 전에 “절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은 절망과 실의, 낙담, 억압 등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기 위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sup>10</sup> 벤슨 회장께서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시며, 절망을 이겨 낼 12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하며, 운동을 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취하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이고, 신권 축복을 구하며, 영감에 찬 음악을 듣고, 축복을 헤아리며, 목표를 세우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전이 가르치듯, 무엇보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5 참조)<sup>11</sup>

사탄은

나약하기만 했던 성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네.<sup>12</sup>

악의 권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그 한계를 정하며, 사탄은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경전은 “어린 아이를 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시합니다.(교리와 성약 29:47)

또 다른 중요한 한계점은 우리가 말해 주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 생각과 네 마음의 의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16)

주님께서 “불평하지 말라”와 “너는 네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6, 교리와 성약 42:27)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야고보서 1:26 참조) 사탄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불평과 불만, 비방하는 말이 들리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적에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루시퍼의 군대보다 규모가 큼니다. 물론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사악해지고 있어. 전세가 사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야.”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수가 적보다 우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중 3분의 2가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우십시오. 반드시 영의 검을 들고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마감하실 즈음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디모데후서 4:7) ■

주

1. 경전 안내서, “루시퍼”, scriptures.lds.org.
2.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5쪽.
3.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 72.
4. Francis M. Gibbons, *Heber J. Grant: Man of Steel, Prophet of God*(1979), 35-36 참조.
5. 예를 들어, 데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0쪽; 고든 비 헝클리,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6쪽 참조.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4쪽.
7. *가르침: 조셉 스미스*, 318쪽 참조.
8. Lyman E. Johnson, Brigham Young, *Deseret News*, Aug. 15, 1877, 484.
9. 데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와서 우리와 함께합시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23쪽.
10. 에즈라 테프트 벤슨,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7년 3월호, 2쪽.
11. 에즈라 테프트 벤슨, “절망하지 마십시오”, 2-5쪽 참조.
12. William Cowper, Robert Andrews, comp., *The Concise Columbia Dictionary of Quotations*(1987), 78.

스카이드랏은 내가 이제껏 만나 본 사람들 중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의 삶은 그림같이 완벽해 보인다. 그러나 유년 시절 그녀는 알콜 중독자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는 스카이드랏과 그녀의 여동생을 돌볼 능력이 되지 않았다. 여동생이 제대로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났을 때 스카이드랏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스카이드랏은 여덟 살이 되면서 위탁 가정을 전전했다. 때로는 발로 차이고, 언어맞기도 했으며, 기도를 금지당하기도 했다. 양부모들은 그녀를 마치 노예처럼 대했다. 그렇게 살다가 그녀는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희망을 찾던 스카이드랏은 후기 성도 집회소에 들어오게 되었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 스카이드랏 보쿠마

라트비아 리에파야

“한 자매 선교사가 제게 인사하며 환하게 웃어 주었습니다. 마치 천사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17년이 흐른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제 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게 삶은 아름답습니다.”

미디어 자료실에서 전체 포토 갤러리를 볼 수 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찾아 내고 도움을 주는 법을 배우려면 [lds.org/go/41739](https://lds.org/go/41739)를 방문한다.





## 그 노래는 틀지 말아 주세요.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우리 가족은 멕시코 베라크루스에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세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도울 때면 우리는 그 도시에서 제일 인기가 좋던 라디오 방송을 틀어 놓곤 했는데, 그 시간이면 젊은 남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하루는 귀에 감기는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찬찬히 가사를 들어 보니, 드러나게 천박하지는 않더라도 도발적이고도 자극적인 내용이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노래는 들어선 안 돼.” 아이들은 설령 가사에 집중하지는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콧노래로 음을 따라 부를 만큼 신경이 가고는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오디오의 소리를 꺼 버리자 아이들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라디오 진행자한테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는 빼 달라고 해야겠다.” 아이들이 놀라는 것을 보니 더욱 움직일 용기가 솟았다.

아이들도 나도 믿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나는 전화기를 들고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정말로 전화를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듣던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바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아침에 그 시간에는 라디오를 듣는 가족들이 많으니 그 노래를 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디오에서 귀에 감기는 노래가 흘러나오자, 나는 찬찬히 가사를 들어보았다.

그러면 그 노래 대신 어떤 곡을 틀면 되겠느냐고 그가 물었다. 진행자의 태도가 매우 정중했기에 나는 그냥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그 노래를 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그 통화 내용이 생방송으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 진행자가 내 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리고 며칠을 지켜보면서 그가 내 부탁을 들어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일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자녀를 지켜 내려면,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성신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

마리아 에르난데스, 미국 텍사스 주



## 잃어버린 지갑

**일**마 전 나는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서 교회 회원 몇 명에게 자잘한 손질을 좀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한참 일을 하던 중에 나는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잠시 나갔다 왔다. 그런데 작업을 모두 마치고 보니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아침에 고객한테 받은 돈에 온갖 신분증까지 지갑에 들어 있었던 터라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었다. 물건을 샀던 곳을 되짚어 가 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집 안 어딘가에 떨어진 건 아닐까 싶어 집도 뒤져 보았지만, 지갑은 없었다. 이제는 신분증을 전부 재발급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려던 친구 하나가, “기도는 해 본 거지?” 하고 물었다.

나는 주저 없이 ‘당연히 기도야 벌써 했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진정한 의도로 기도를 한 건 아니었다. 그대신, 내 뜻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서 어떻게든 그분이 꼭 내 지갑을 찾아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문득 이사야 55장 8절의 구절이 떠올랐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일요일에 교회에 가니, 전날 함께 있었던 회원 하나가 내가 지갑을 찾도록



**나**는 아내와 아이들의 신앙이 강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며 내가 지갑을 찾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날 오후, 나는 개인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인 진 알 쿡 장로님의 *Receiving Answers to Our Prayers*[*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라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첫 장에 나오는 일화가 내가 겪었던 일과 똑같았다. 쿡 장로님의 아들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게 해 달라고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였다.

그 경험담을 읽고 나도 아내와 아이들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한 사람씩 기도드리며 주님의 뜻이라면 지갑을 찾게 해 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나는 이미 기도의 권능에 대한 간증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혼자서 기도하며 아내와 아이들의 신앙이 강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청했다.

다음 날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돈이 든 내 지갑을 찾았다고 했다. 내 기도가 이뤄지고 우리 가족의 신앙이 단단해진 것에 나는 아이처럼 울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돌볼 자녀들이 많더라도 그분이 정하시는 시기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신다. ■

루이스 마르셀리노, 브라질 교야스

## 로비에서 구조되다

**남**편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때가 많은 탓에 나는 종종 혼자서 아들 넷을 교회에 데려가야 한다. 어느 일요일,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두 아이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책으로 한 아이의 관심을 끌면, 다른 아이도 그것을 달라는 식이었다. 간식이나 장난감을 쥐 보기도 하고 색칠도 하게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나는 한 시간도 얌전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들들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버렸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장난감을 하나 꺼내 한 살배기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세 살배기 아들 타이슨이 소리를 지르며 그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동생을 덮쳤다.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두 아들을 데리고 로비로 나가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내 가족을 교회로 데려온 것뿐인데 말이다. 하지만 더는 할 수가 없었다. 매주 성찬식 때마다 남편도 없이 아들과 싸우는 것은 너무 힘들고 창피한 일이었다. 다시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데, 인사만 하고 지내던 한 자매님이 내 뒤를 따라 로비로 나왔다. 비어스라는 이름의 자매님이었다. 그 자매님은 남편은 감독단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은 다 키웠기 때문에 주로 혼자 앉아 계셨다. 그 자매님이 말씀하셨다. “항상 여기 혼자 계시네요! 자매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타이슨을

**나**는 한 시간도  
얌전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들들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버렸다.



심화: 엘런 칸스

데리고 들어가 함께 앉아도 될까요?” 나는 뭐라고 답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자매님은 얌전하고 행복한 아이로 돌아온 타이슨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안아 들고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은 모임에 참석하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다음 주 일요일, 타이슨은 예배당에 들어가자 지난주에 새로 사귄 비어스 자매님을 찾았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비어스 자매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자매님을 정말 사랑해요!”

삼 년이 지난 지금도 타이슨은 예배당에서 비어스 자매님을 찾곤 한다. 작년에는 비어스 자매님이 타이슨의 초등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기도 하셨다. 타이슨은 더없이 행복해했다.

나는 비어스 자매님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자매님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자 하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가 구주께서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

크리스티 루이스, 미국 유타 주

## 완료!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감독으로서 한 좋은 친구와 접견을 하면서 그 친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잠시 그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 듣다 보니, 그가 경전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경전을 꾸준히 읽는 게 힘이 들었기에, 그의 감독인 나도 경전 공부를 더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서로 “확인 동반자”가 되어 주자고 했다.

우리는 매일 각자 경전을 다 읽으면 상대방에게 “완료!”라는 문자를 보냈다. 내가 오늘 읽을 분량을 읽었는지 알려 주기를 기다리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 큰 동기가 되었다. 경전 읽기를 깜박했을 때는 상대방의 문자 덕분에 그 일을 기억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상대가 문자를 보내지 않더라도 이유를 캐묻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상대방이 경전을 읽도록 도왔다.

우리가 이렇게 한 지도 벌써 육 개월이 지났다. 아직은 경전 읽기를 빼먹은 날이 없는 것 같다. 그 친구는 몇 달 전 금식 간증 모임에서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이 받은 긍정적인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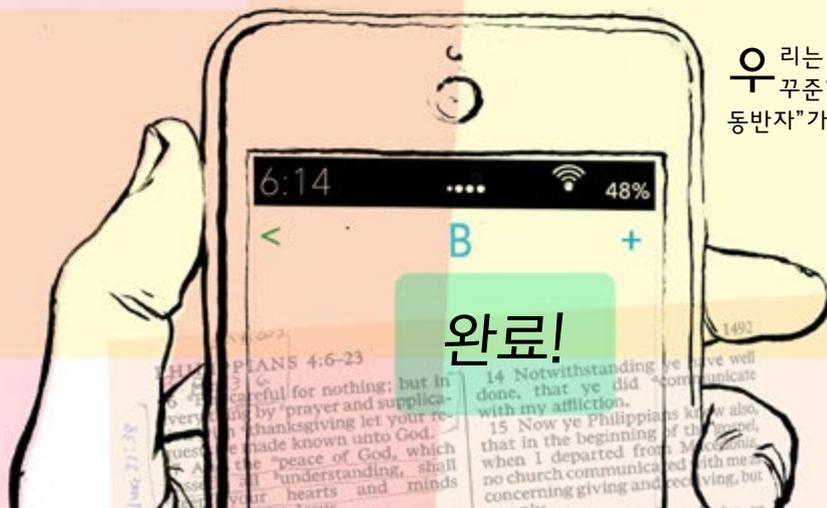


간증했다.

나는 그 친구, 그와의 우정, 그리고 그가 매일 보내 준 문자에도 감사한다. 나는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면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경전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간증한다는 것에도 감사드린다. 구주의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언젠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있음을 나는 안다. ■

알렉스 워블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우리는 경전을 좀 더 꾸준히 읽기 위해 “확인 동반자”가 되었다.





## 니만의 리아호나

“여러분의 축복문을 잘 접어서 책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시를 위해 사진틀에 넣어 두거나 게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축복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 축복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가장 어두운 밤에 여러분을 지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의 위험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 여러분의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진로를 안내하고 길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리아호나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축복사의 축복: 빛의 리아호나”,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84쪽, 번역 수정.

# 축복사의 축복에 대한 이해

알리 아넬과 마거릿 윌든

**인** 생이란 여정에는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길이 많다. 어느 학교에 다녀야 할까?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선교 사업을 가야 할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삶의 결정을 내릴 때 방향을 인도해 줄 나만을 위한 지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지도를 따라가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시고자 축복사의 축복이라는 지도를 주셨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의지라는 은사도 받았지만, 축복사의 축복이 있으면 어느 길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도에 담긴 의미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주어지는 개인적인 지침인 축복사의 축복에 쓰인 말을 이해하면, 주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지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 내 혈통을 알아본다

무엇보다 먼저, 축복사의 축복은 나의 혈통, 즉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를 알려 준다. 모든 사람이 야곱의 직계 자손은 아니지만, 경전에서는 교회 회원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입양된다고 가르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아브라함서 2:10)

미국 유타 주에 사는 실라이자 슈로펠은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생에서 제가 이를 목적이 무엇이며, 왜 제가 교회에서 특정한 부름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자신이 속한 지파에 수반되는, 그 지파와 관련이 있는 축복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가령, 교회의 많은 회원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데, 이 지파의 고유한 책임은 회복된 복음



**축복사의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신명기 33:13~17; 교리와 성약 133:26~34 참조)

## 개인적인 권고를 찾는다

여행자는 지도를 적절히 사용할 때 길을 잃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이 지상을 여행하는 동안 삶에 필요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축복사의 축복이 우리가 할 일을 직접 말해 주지는 않는다. 그 대신



## 연구를 위한 조언

- 축복사의 축복에서 권고, 경고, 재능 및 약속을 찾아본다. 삶의 현재 단계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기도한다.
- 평생 동안 축복문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자주 연구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 축복사의 축복이 인생의 모든 면을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이 추구하려는 중요한 목표가 축복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복음에 순종한다. 축복사의 축복에 있는 축복은 내가 의로울 때만 유효하다.
- 축복문에 언급된 은사를 얻기 위한 목표와 더불어 축복문에 언급된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 나는 지금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느 곳에 있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다. 내가 세운 목표는 축복사의 축복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 축복사의 축복문 사본을 마련하여 공부할 것을 고려해 본다. 깨달은 바를 쓰고, 눈에 띄는 단어에 표시하고, 축복과 관련된 경전 구절을 적어 볼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신앙으로 구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길로 가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개인적인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을 연구하고 주님의 영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고 기쁨과 방향성을 발견하게 된다.

페루 리마의 가브리엘 파레데스는 말한다. “제 축복문에 있는 권고 중에는 제가 아내와 인봉된 후에야 비로소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새로 꾸린 가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 축복문에는 가족 간에 무엇보다 존경과 관용, 사랑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들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곤 하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가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축복문의 권고를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 훈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지도는 어디가 위험한지를 일일이

표시해 주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축복사의 축복은 여정에 오른 우리를 보호해 주고자 경고의 음성을 전해 주곤 한다. 이런 훈계 중에는 사탄의 영향력에서 보호받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으로 난 사람을 극복할 방법을 깨우쳐 주는 것도 있다.

유타 주에 사는 케이틀린 카는 처음에는 축복사의 축복에 있는 몇 가지 훈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축복문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제 축복사의 축복에는 듣기 좋은 말로 저를 시험하고 저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관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배운 교리에 한 치의 의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 해, 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성과 사랑에 뿌리를 내린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상과 철학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 메시지는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매체, 학교,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서까지 말이예요. 그런 철학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세상의 그런 새로운 사상과 교회를 둘 다 옹호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곧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마태복음 6:24)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경전을 통해 제 의문을 풀어 주셨고 제 생각과 마음을 평화롭게 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제 간증은 강화되었고, 저는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흔들림 없이 옹호하게 되었어요.”

### 은사와 재능을 개발한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주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재능도 언급되어 있다. 축복문에 낫선 재능이 언급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재능을 발견하거나 개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지런히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재능과 다른 많은 재능을 발휘할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재능을 발전시키다 보면 남과 다른 나의 어떤 점이 주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조한나 블랙웰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축복문에 있는 은사와 재능에 관해 깊이 생각한다. “저는 축복사의 축복에 적힌 말씀을 살펴 보면서 제가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의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은사를 축복으로 받았음을 떠올립니다.

제 축복문에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과 어울릴 용기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은사를 활용하자, 주님은 제가 새로운 사람과 문화를 접하고 소통하기를 더 크게 소망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간증이 커졌으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축복사의 축복에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충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한, 이생이나 다음 생에서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미국 네바다 주의 서지오 구티에레스는 장래의 진로 계획이 걱정될 때마다 축복사의 축복에 있는 약속에 의지한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불안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약속이 축복사의 축복에 적혀 있어요. 이 약속 덕분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충실하다면 가족을 부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여건이 제게 마련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직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약속이 있으니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게 여겨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갈래의 다른 길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의 복음에 끊임없이 삶을 맞추어 갈 수 있게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주셨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려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도록 이끌어 줄 수는 있다. 우리는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지파를 앞으로써 이스라엘을 집합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에 자신이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권고와 훈계 및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섬기는데 쓰도록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에 관해서도 배운다. 축복사의 축복에 주어진 이 모든 요소에 걸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가 결정한 것들은 우리 삶에 주님께서 품으신 뜻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각각 미국 일리노이 주와 뉴욕 주에 산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이 그분의 복음과 일치하도록 우리에게 개인 지도를 마련해 주셨다.

#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며

카리나 마르틴스 페레이라 코헤이아 데 리마

**결** 혼과 성전 인봉을 앞둔 몇 주 동안, 나는 가정을 꾸리기에 전에 해야 할 모든 일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기쁨도 컸지만, 일상에 새 흐름을 만들고,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며, 짐을 보관할 장소를 찾고, 아내로서 해야 할 모든 새로운 책임을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다.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계명을 지키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중요한 일을 위한 기회를 틈틈이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나는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등장하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내가 자란 친정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격한 언쟁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곳이었기에, 이런 나쁜 꿈을 꾸고 나면

나는 필요 이상으로 괴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또 비슷한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나는 본부 청녀 회장단 제2보좌인 닐 에프 매리엇 자매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라는 말씀에서 주신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30~32쪽)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런 나쁜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직접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라도 한 것처럼 신속하고 강하게 응답이 찾아왔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매 순간 충실하여라.” 영은 구체적인 조언을 속삭여 주었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가슴이 훈훈해졌다. 그리고 영의 속삭임이 참됨을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니파이가 낯선  
곳으로 향해해  
나아갔듯이, 나도  
가족을 꾸리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했다.**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전에도 성신을 느껴 보았지만, 그날 밤처럼 강하게 성신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또 우리 가족의 안위와 구원은 나에게만큼 그분들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던 경전 속 일화가 생각났고, 그 일화는 나에게 확신을 더해 주었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 백성을 이 물 건너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보여줄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할지니라 하시더라.”(니파이전서 17:8; 강조체 추가)

니파이와 그의 가족은 여러 해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온갖 환난을 견뎠다. 니파이는 바다를 건너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 만도 했고,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니파이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에 순종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신앙이 있었다. 주님은 니파이에게 폭풍우가 일지 않으리라고도, 배에 파도가 치지 않으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주님은 당신의 지시를 따른다면 니파이가 바다 건너 약속된 땅으로 가족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 역시 여러 해 동안 광야를

여행한 끝에 이제 바다에 이르러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배를 지으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아마도 모든 후기 성도 가족이 똑같은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실제로 결혼 후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우리는 그 와중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가 따르기로 한 모든 훌륭한 습관들을 실천하느라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그날 밤 받았던 가르침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슴에 간직하며, 그리스도를 포함해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훌륭한 모범을 따르고, 행동을 개선하려고 매일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기도에 대해 더 강한 간증을 얻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신뢰는 키우고 두려움은 덜어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방편 삼아 우리가 발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 가정은 마치 작은 천국과 같다.

아직은 이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것은 내가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 우리가 받았던 성전 의식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권세로써 그 의식이 인봉되었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맺은 성약이 얼마나 성스러운지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다른 가족들도 이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싶다는 소망이 커진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배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디모데후서 1:7)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가르침을 따르며, 개인적인 가르침을 더 받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면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리라는 신념으로 마지막 날이라는 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

글쓴이는 브라질 파라나에 산다.



# 어떻게 하면 생각과 마음으로 공부할 수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보자.

**교**리와 역사, 또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찾는가? 주님은 “나는 ...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8:2) 여러분은 영감을 분별하기 위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다음은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이다.

## 생각

###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청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인생에서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 우리가 복음 원리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마음속으로 연구해 본 뒤,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기도로 당신께 알리기를 바라”신다고 가르쳤다. (“성신”,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05쪽)

이 가르침은 어떤 질문에든지 적용된다. 연구를 하다가 답이 보이면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자. 성신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말, 혹은 다른 개인적인 신호 등을 통해 속삭여 줌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응답을 더 풍부하게 얻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 자료를 활용한다

경전 안내서 및 다른 학습 보조 자료 등과 함께 경전을 탐구한다. 연차 대회 말씀, LDS.org에 있는 복음 주제, 교회 잡지, 조셉 스미스 기록 프로젝트 등과 같은 후기 성도 자료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54쪽에 도움이 될 교회 자료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이야기를 나눈다

도움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이렇게 독려했다. “여러분이 도전해 보실 만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친구, 부모님, 조부모님, 선생님, 감독단, [혹은] 고문 등 [여러분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사람을 생각해 보고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실시간 방송, 2016년 1월 20일) 한번 해 보자! 여러분이 의문스러워하는 점에 관해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보는 것이다.

기도

경청

말씀

삽화: 조시 벨벳

# 있을까요?

연구

연구

기도

경청

인내

## 마음

###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청한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청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숙고할 때 밟게 되는 중요한 단계들이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싶으면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감지할 수 없는 도구로는 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음”,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2쪽) 성신은 영적인 것들을 배우는 데 쓰이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영에 귀 기울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인내한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또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전에는 흐리고 어둡고 멀게만 보였던 것들이 점차 명백하고 밝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빛과 진리의 간증을 얻음”, 22쪽) 답을 찾는 일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꺼운 마음으로 답을 듣고자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속삭임을 식별하는 법을 연습한다

영의 속삭임을 알아차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영이 마음에 속삭일 때 그 속삭임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질수록 앞으로 영의 속삭임이 주어질 때 그것을 분별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는 영을 통해 “그것이 옳은 줄 느끼게 되”거나, 옳지 않은 일이라면 “생각이 둔하여”질 것이다.(교리와 성약 9:8~9 참조) 또한, 온화하게 일깨우는 느낌과 평화로운 느낌, 또는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영을 이해할지도 아신다. 주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연습하자. ■



## 하나님의 응답

“정직한 질문을 하는 것은 신앙을 쌓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성과 감성을 모두 활용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교리와 성약 8:2] 모든 답이 곧바로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 질문은 진지한 연구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답을 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닐 엘 앤더슨 장로,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66쪽.

# 나에게 맞는 경전 공부

복음을 공부하고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방법들을  
살펴보자.

베서니 바르톨로뮤  
교회 잡지

**여** 러분은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을 때, 혹은  
단순히 경전 구절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가? 개인적으로 말이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복음도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잊곤 한다.  
다음에 영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질문이  
생긴다면, 아래 소개하는 방법들을  
시험해 보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자.



## 1. 만든다

목록, 표, 지도 등을 만든다. (아래 예시 참조)

학습 연결도를 만들어 보자. 단어나 생각들을 적고, 그것들의 관계를 선과 말풍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내면 된다.

### 목록, 표, 지도 만들기

**복**음을 공부할 때는 목록, 표, 지도 등을 활용하여 생각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신약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서한을 공부할 때 만들 수 있는 표의 예시이다. 목록, 표, 지도 등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만들면 된다. 창의력을 발휘하자! 복음을 공부하며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바울의 서한			
서한	누구랑	어디서	주제
예: 디모데전서	언급 없음	라오디게아(디모데전서 6장 끝에 있는 주석 참조)	참된 교리, 구주, 기도, 신앙, 자애, 지도자의 자질, 배도, 가난한 자를 돌봄, 신앙에 충실함, 세상의 재물을 피함

## 2. 쓴다

경전을 공부하며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학습 일지에 기록해 두고 자주 읽어 본다.

기도한 후에는 지금 공부하는 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본다. 성신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

공책이나 핸드폰, 또는 여러분 침대

옆에 둔 메모장에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를 적으면서 여러분이 매일 배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



## 4. 조사한다

조사하는 학습법은 경전을 공부하거나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 유용하다.(아래의 유용한 LDS 자료 목록 참조)

LDS.org에서 현재 공부하는 부분과 관련된 영상 자료나 음악을 찾아본다.

문맥을 공부한다. 지금 공부하는 주제나 성구와 관련된 역사를 찾아보거나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LDS.org에 포함된 자료

- 경전(scriptures.lds.org)
- 연차 대회(conference.lds.org)
- 복음 주제(topics.lds.org)
- 잡지(liahona.lds.org)
- 교회 역사(history.lds.org)
- 학습 도움말(scriptures.lds.org)
- 공과 및 가르침 자료(lds.org에서 “경전 및 학습” 클릭)
- LDS 미디어 자료실(lds.org/media-library)
- 희망과 도움(lds.org에서 “가족 및 개인” 클릭)

### 학습 보조 자료의 도움을 받는다

**경**전과 온라인에는 중요한 주제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가 많다. 다음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출처를 나타낸 목록이다.



### 경전에 포함된 자료

- 경전 안내서
- 연대표(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및 몰몬경에 나오는 사건을 대략의 날짜와 함께 연대순으로 정리한 표, [경전안내서 194쪽])
- 복음서의 공관대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건, 장소 및 대략적인 시간순에 따라 정리한 것)
- 조셉 스미스 역 성경
- 지도 및 사진
- 성경 책명 약자표



### 기타 온라인 자료

- 가족 역사(familysearch.org)
- 몰몬 채널(mormonchannel.org)
- 연차 대회에 인용된 경전 구절(scriptures.byu.edu)
- 몰몬 뉴스룸(mormonnewsroom.org)
- 선교 사업과 복음 나누기(mormon.org)
- Joseph Smith Papers Project[조셉 스미스 기록 프로젝트](josephsmithpapers.org)

## 3. 듣고 토론한다

부모나 신뢰할 만한 어른과 이야기한다. 함께 알아본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다. 돌아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아는 것을 나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토론한다.

경전이나 다른 교회 이야기 및 자료를 오디오 파일로 들어 본다.

## 5. 실천한다

경전이나 다른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를 역할극이나 연기로 나타내 본다. 경전 속 인물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가?

경전에서 찾은 답을 연결하여 성구 고리를 만든다. (아래 예시 참조)

### 성구 고리 만들기

**주** 제가 같은 경전 구절을 여러 개 같이 적어 두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경전 안내서에서 지금 공부하는 주제와 관련된 성구들을 찾아본다. 그런 다음 각주와 문맥을 활용하여 같은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담긴 성구들을 연결한다. 각 성구의 주변 여백에 다음 성구 고리에 해당하는 성구를 적어 나간다. 특정한 주제에 관해 연차 대회 말씀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conference.lds.org의 주제 목록을 참고한다.) 다음은 소망을 주제로 한 성구 고리의 예시이다.

### 성구 학습 고리

소망에 관한 경전 구절



### 소망에 관한 말씀

- 딘 엠 데이비스 감독, “예배가 가져다주는 축복”, 2016년 10월 연차 대회.
- 폴 브이 존슨 장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2016년 4월 연차 대회.
-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2016년 4월 연차 대회.
-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2015년 4월 연차 대회.
- 보이드 케이 파커(1924~2015) 회장, “우리 희망의 근원”, 2014년 10월 연차 대회.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참으로 값진, 소망의 유산”, 2014년 4월 연차 대회.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 진정한 평화를 찾는 법

**선** 한 사람들의 의로운 소망은 어디에서나 지상에 평화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께서서는 “인류가 주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스러운 그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평화를 얻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의로운** 이에게 약속된 **보상**인 평안을 얻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몫입니다. 이 평안은 구주의 사명과 속죄 희생으로 주어지는 약속된 은사입니다.

평화는 단지 안전하다거나 전쟁, 폭력, 갈등과 논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나큰 시련과 비극을 겪을 때에도 **구주를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구주께서 아시며 **그분이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교리와 성약 121:7~8 참조)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함 막고”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그 답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자 근원이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이사야 9:6)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례의 물**가로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평화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의 훌륭한 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정을 증진하고,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권 권세를 통해서만 가족을 결속할 수 있으며,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이 교회에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주님과 맺는 성약이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성전은 그러한 성스러운 여러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자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의 근원입니다. 성전 경내에 가 보거나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런 평안을 느낍니다.

구주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면 구주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개인적인 평안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14:26~27; 16:33 참조) ■

201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 교회 자료는 없었지만, 나는 간증을 기억했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단순한 간증만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옹호할 수 있을까?

아브게일 디 페레

글쓰이는 필리핀 카가얀에 산다.

어느 해엔가 나는 영적인 배움을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는 학교는 물론 어디에  
가든지 교회 서적과 소책자, 교재, 경전을  
가지고 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와서 공부로 바빠지자 이러한 노력은  
시들해졌다.

어느 날 선생님이 토론을 진행하시며  
반에서 천주교 신자가 아닌 학생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고 하셨다. 나는  
반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였다. 나 말고도  
여섯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그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그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내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었다. 나는  
교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긴장이 되었지만,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나는 두려움도 잊고 담대하게 반  
친구들 앞에 섰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던 조셉  
스미스라는 어린 소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교회는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다는 말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름받았고 신권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알고 있다고 간증했다.

경전 공부를 하며 보낸 많은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말이다. 몇 주 후 같은 반 친구 네 명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왔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나는 이 일로 간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왜  
그날 교회 자료를 가져가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셨는지 의아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암기하거나  
서적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복음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성신에 의지하여 복음을  
나눠야 한다. 교회 자료는 없었지만,  
내게는 간증이 있었다. ■



# 그분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부**활하신 구주를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어떨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경험했기에 그런 상황을 상상할 필요가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록한 성구는 신약전서에는 적어도 열두 차례, 몰몬경에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신 기적을 목격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경전에서 이런 순간을 몇 군데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목격자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처음 맞는 일요일 아침에 마리아는 다른 여인 몇 명과 함께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흐느껴 울 때,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 물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는가.(요한복음 20:1~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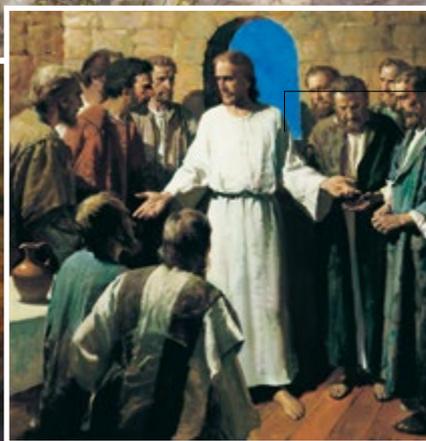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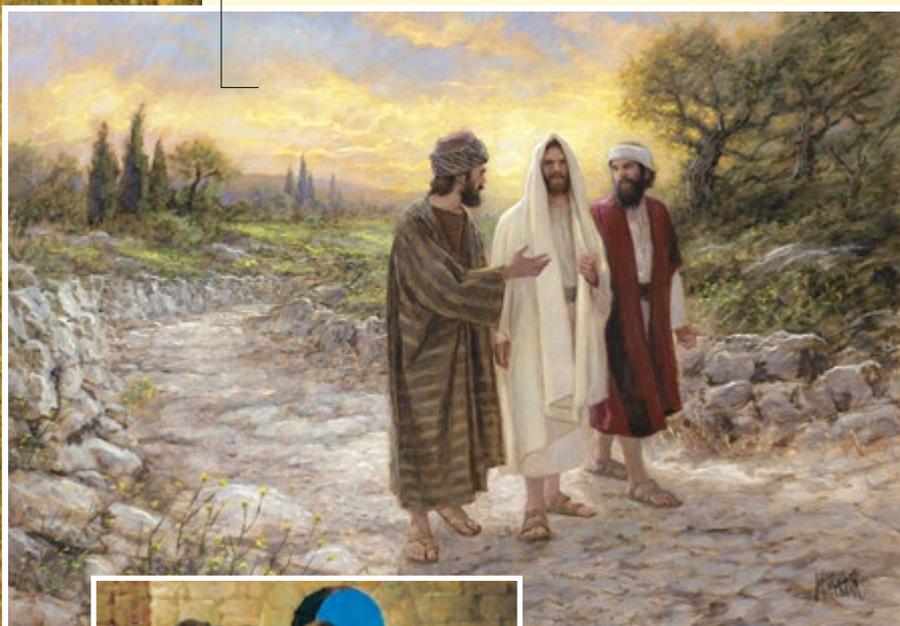


페넌트 © ISTOCK/GETTY IMAGES



###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엠마오를 향해 건다가 낮선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새 일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함께 저녁을 들던 자리에서 그 낮선 이가 떡을 떼자 그제야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여태 구주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주께서 참으로 자신들과 함께하셨음을 확신하며 그 사실을 곱씹던 그들은 서로 이렇게 물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 24:13~34 참조)



### 열 명의 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엠마오에 다녀온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경험을 열 명의 사도들과 나눴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전할 때 구주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6~41, 44~49 참조)

주님 다시 부활했네, 그레그 케이 올슨, 복사 금지  
 엠마오로 가는 길, 존 맥너튼  
 내 손과 발을 보라, 해리 앤더슨

## 사도 도마

구주께서 처음으로 다른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사도 도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일주일 후 다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 도마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었다. 구주께서는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 것에 대해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한복음 20:24~29 참조)



출처: 로버트 리먼, 캔버스, 1915년



## 디베라 호수에 있던 열한 명의 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몇몇 사도가 디베라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별로 운이 따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구주께서 나타나시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이르셨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매우 많이 잡혔다!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사도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여생을 바쳤으며, 그중 몇몇은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다.(요한복음 21:1~22 참조)



출처: 로버트 리먼, 캔버스, 1915년



한 목자, 하워드 라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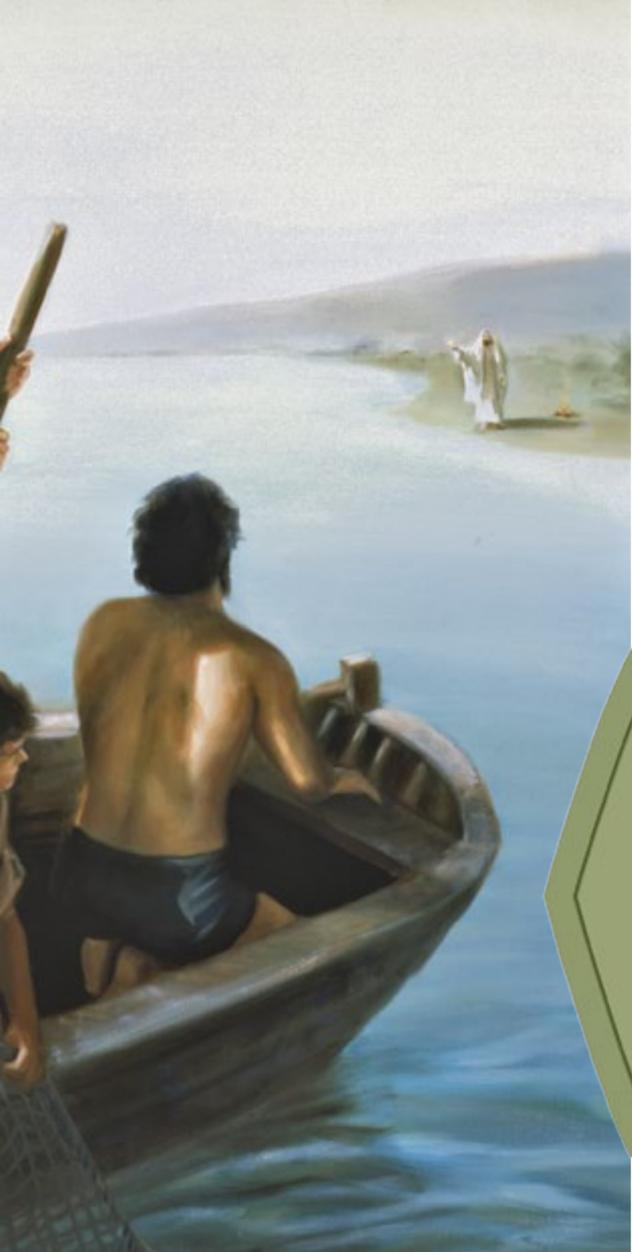
### 미대륙의 니파이인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미대륙은 지진과 화재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구주의 죽음을 나타내는 사흘간의 암흑으로 황폐해졌다.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는 풍요 땅 성전 주위에 모인 2,500명 무리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 주님은 백성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 보라고 하셨고, 설교를 하셨으며, 니파이인 어린이들을 한 명씩 축복하셨다. 다음 날은 더 많은 백성이 모였으며, 구주께서는 이들을 방문하여 가르치셨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니파이 백성들은 강력한 증거를 얻었으며, 이 증거 덕분에 니파이인은 물론 레이맨인도 주님께 개종하였다.(제3니파이 11~18장 참조; 또한 제3니파이 8~10장; 제4니파이 1장 참조)

### 과거와 현재의 증인들

또한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를 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 무덤을 찾아온 몇몇 여인을 비롯하여 500여 명의 무리들,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마태복음 28:9; 사도행전 9:4~19; 고린도전서 15:6~7 참조; 또한 제3니파이 19장; 26:13 참조)

이 증인들과 달리 우리는 구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구주에 관해 더 깊이 배움으로써 개인적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다. 계명을 지키고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삶에 임한 구주의 축복을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활절 절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으나 그것만이 인생에서 그분을 증거할 유일한 길은 아니다. ■



###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간증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그를 통해 확인과 재확인을 받을 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범의 빛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할 때,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에 대해 배우고 따르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 *리야호나*, 2008년 3월호, 63쪽.

# 우리들 공간

##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

**예** 술가이신 우리 삼촌은 유리병 안에 작은 나무배를 만드신다. 그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노력도 많이 들어간다.

하루는 삼촌이 쓰시는 온갖 도구를 구경하다가 배에 세밀한 부분이나 장식을 만들어 넣을 때 각각의 도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눈여겨보았다. 나는 삼촌의 작업을 지켜보며 이런 배를 만들기 위해 삼촌이 도구를 활용하시는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니파이가 배를 만들던 이야기가 떠올랐다.(니파이전서 17~18장 참조) 니파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따라 배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방법으로 배를 만들도록 우리에게 도구를 주신다. 경전, 신앙, 하나님의 사랑은 정성을 기울여 물 썰 틈 없이 견고한 나만의 배를 만들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활용해야 할 도구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배우고 있다. ■

마리아 메르세데즈 지, 베네수엘라 모나가스



## 혼자라고 느낄 때

**덴** 마크에서 쌀쌀한 봄을 보내던 때였다. 전임 선교사로 막 발을 내디딘 나는 간증이 약해진 탓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개종한 지 겨우 19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때, 나는 언어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미로 같은 거리를 마주하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때는 감사로 차고 넘치던 내 기도는 어느새 쓰디쓴 비탄의 말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버려두신 거죠?”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분께 애원하며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를

쏟아내며 “왜”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내가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고 의심을 버릴 수 있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무작정 경전을 폈다. 신명기 31장 6절이 나왔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기도에 주어진 응답을 깨달으며 내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물들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왜 나를 버려두었냐는 비탄이 아니라 단지 진실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만 보인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그분의 빛을 느낄 수 있다. ■

클레이턴 이, 미국 텍사스 주

##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리** *이호나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이름과 스테이크 및 와드, 부모님의 동의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 주 예수의 군병들 앞으로 가세

“해의 왕국의 자리를 얻고자 소망하는 남녀는  
매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 294쪽)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는 큰 축복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분의 응답을 알아차리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많다.<sup>1</sup>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듣지 않으시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들으신다!), 우리는 기도로서 진정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분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질문해 보자. 나는 깨끗한가? 내 동기는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려 하는가?<sup>2</sup> 이 질문에 다 그렇다고 응답했다면, 여러분은 “주 네 하나님이 …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라는 말씀을 신뢰해도 좋다.(교리와 성약 112:10) 때로 기도의 응답은 감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주어짐을 기억하자.

위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 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바꿔 보자. 영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는 기꺼운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자.

또한, 응답이 주어지는 방식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응답을 인식하는 법에 관해 성신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처음부터 응답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답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이를 신뢰하자.

주

1. 마태복음 7:7; 야고보서 1:5~6; 엘마서 33:4~11; 교리와 성약 8:1~2 참조.
2. 리처드 지 스코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방법을 배우”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1쪽.



### 영에 귀를 기울여요

성신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세요. 성신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성신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고요하고 작은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신이 말씀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저 귀를 기울이면 돼요.

엘리스 지, 13세, 캐나다 앨버타

### 교회에서 받은 응답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과 데이트를 해도 될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성찬식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치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여태 어떻게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는데, 그때 성신의 위로를 받았어요. 성신은 제 가슴을 기쁨과 용기로 가득 채워 주었죠. 하나님은 느낌과 생각, 경전, 심지어 교회 연사를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캐런 브이, 19세,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화평과 위안, 사랑을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저를 많은 위협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심을 알고 있어요. 또 제가 그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요. 저는 등교 전에 항상 청녀 가치관을 낭송해요. 제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니콜 엠, 19세, 페루 리마



**어린이의 기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초등학교 찬송가 “어린이의 기도”에 나오는 다음 가사 덕분이죠.(어린이 노래책 6쪽)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 하늘이 멀리 있다지만 기도할 때 가까이 느껴져요.” 저는 이 노래를 떠올릴 때면 영을 느껴요. 그리고 그분이 한없이 저를 사랑하심을 느껴요. 그래서 그분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 저는 위안을 느끼고 그분이 제 기도를 들으심을 알게 됩니다.

일레인 비, 16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바람과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른 시기에 오기도 하므로, 우리는 그분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고,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신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고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시아야 엠, 17세, 미국 유타 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경전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과 진정한 의도로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 곧 평안하고 고요한 느낌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된다면, 경전에서 인도를 구한 후 읽은 것들이 참된지 여쭙 보아야 합니다.

콘스탄사 엠, 20세, 칠레 비오비오

**찾아내세요**

하나님께 제 기도가 들릴지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으로 응답을 느꼈어요. 저는 누군가 기도에 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고 성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다른 조언은 부모님이나 감독님, 워드 다른 회원들께 여쭙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조슈아 에스, 13세, 미국 오리건 주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한 후에는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기도에 대한 응답일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영을 느꼈던 순간을 상기하며,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응답을 받고, 구주의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록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철십일 정원의 제임스 비 머리트노 장로, “주님께 의지하면 응답이 주어지리라”,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59쪽.

몰라요.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 응답하셔요. 그분은 그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 주시려고 응답하지는 않으셔요. 장클로드 엠, 16세, 콩고 민주 공화국 카사이스트랄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 불친절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을 2017년 5월 15일까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작품 제출” 클릭)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워드 또는 지부, (4)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나쁜 말을 하면

줄리 시 도널드슨  
실화에 근거함

“회개할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기도할게요.”(Children’s Songbook, 98)

“네가 욕을 안 한다고 다른 애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쉬는 시간에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안드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한마디도 욕을 안 하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그런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다들 욕을  
한다고!”

안드레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하기가  
싫어.”

안드레이는 욕설은  
성신이 사라지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성신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6학년 반에서  
여태 전학생  
안드레이와  
친구가  
되겠다는  
아이는  
니콜라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욕설  
문제로 안드레이를  
괴롭혔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날이 갈수록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니콜라이가 이제 친구로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 정말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방과 후에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해 봐. 그럼 이제  
성가시게 하지 않을게.”

결국 시달리다 지친  
안드레이는 욕설을 한 마디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다지 심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이제 넌  
우리 친구야.”

그 후 니콜라이와  
어울리던 다른





친구들도 안드레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쉬는 시간에 축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무리와 어울리는 건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애들과 어울릴수록 안드레이도 그 애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욕설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서로 비웃고 놀려 대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가 나서 거칠게 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이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이런저런 구실로 욕설이 늘어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우신 어느 날 밤, 안드레이와 누나 카트야는 텔레비전 채널을 놓고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안드레이는 자기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누나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안드레이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항상 안드레이를 화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오시자, 안드레이는 빠끔히 방문을 열고 카트야 누나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안드레이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절대 욕을 할 아이가 아니야.”

안드레이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신을 느낀 것도 까마득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짓궂게 굴고 화만 내서 정말 죄송해요. 욕설을 시작한 것도 죄송해요. 이제 더 착한 사람이 될게요.”

기도를 하자 안드레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욕설을 하면서부터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안드레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성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이제는 달라져서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안드레이는 엄마께 사실을 말하고 누나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회개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안드레이는 학교에서 니콜라이 무리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욕설을 하지 않는 착하고 유쾌한 친구들이 생기기라는 것을 안드레이는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 같은 친구들 말이지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 도전 과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나의 복음 표준)

종이의 한쪽 면에 좋은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쓰거나 그려 보세요. 그리고 다른 면에는 나쁜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쓰거나 그려 보세요.

레위기 19:12을 읽어 보세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 좋은 언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언어가 어떤 축복을 가져다주었는지 부모님이나 지도자에게 여쭙 보세요.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



---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어떻게 하면 가족이 굳건해지도록 힘쓸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여러분이 성신의 증거하심을 통해 참되다고  
알게 된 간증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전해 주세요.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 읽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가정의 밤에 참여하고  
가정의 밤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세요.



조이 디 존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 성전에 갈 준비는 매일매일!

**제**가 아홉 살 적에 제 초등학교 선생님은 콜러 자매님이라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콜러 자매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저는 자매님이라 있는 것이 정말 좋았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은 저희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거기에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적었지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대학에 가, 성전에서 결혼하기.” 그러곤 제 방 벽장 문 위에 그 종이를 붙여 놓았답니다. 밤이면 제 방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적은 종이를 올려다보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성전에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지요.

그때는 전 세계에 성전이 열두 곳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성전에 전부 가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휴가 때마다 늘 저희를 성전에 데려가셨습니다. 저희는 미국 오리건 주에 살고 있었는데, 965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앨버타 주의 카드스틴 성전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전이었습니다. 저희 차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저희 남매들은 뒷좌석에 앉아서 자동차 창밖에 젖은 수건을 걸어 두었다가 목 언저리에 그 수건을 얹으며 열을 식히곤 했지요.

그러다 마침내 성전이 보이면 저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성전에서 나오시는 부모님은 늘 행복한 얼굴이셨지요. 저는 성전이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곳은 주님의 집이라는 것도



알았지요.(사진 속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저예요.)

저는 열두 살이 된 이후로 여러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았답니다.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성전을 좋아한다고 했지요. 저희는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도 성전에 가세요. 가서 성전 벽을 만져 보세요. 제 손자 재럿은 열한 살 때 일요일마다 아빠와 함께 가족 역사 작업을 하면서 많은 조상의 이름을 찾았어요. 이제 열두 살이 된 재럿은 그 조상들을 위해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을 거닐 수 있어요. 성전은 그분의 집이니깐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

# 눈부시게 빛나는 스타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너와 함께 초등학교에 있으니 참  
좋아”(Children’s Songbook, 254)

**스**타는 매무시를  
가다듬었어요. 치마를  
입고 교회에 가는 건 여전히  
어색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여자아이들도  
일요일에 바지나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하지만 새로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 전 스타는 엄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스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식으로 회원이 된 후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거라 신이 낫지만, 한편으로  
긴장도 되었거든요. 스타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내내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초등학교에 갈 거예요.

스타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말뚱말뚱 바라보았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지? 다른 아이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스타야, 준비됐니?” 엄마가 부르셨어요.

스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저 괜찮아요?” 스타가 여쭙  
보았어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예쁘구나.”  
스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엄마니까요.”

“맞아. 엄만 정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사실이니까.”

스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늘 스타의 기분을 잘  
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스타는 계속 긴장이  
되었어요. 아무도 스타에게  
말을 걸어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스타가 새로 다니게 된 교회에 다니지 않았거든요.  
스타는 함께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할 일이 생각났어요.” 스타는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스타는 다시 위층으로 달려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사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정말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겁이 나요.”

스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귀를 기울였어요. 잠시 후  
달콤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고, 스타는 더는 심하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스타는 엄마와 함께 어린 여자아이 셋을 둔 어떤

가죽 옆에 앉았어요. 모임이 시작되기 전, 이 가족의 부모님은 자신들을 소개하더니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스타는 꼬마들이 예수님 그림을 색칠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앤드루스 감독님이 스타와 엄마에게 다가오셨어요. “키넵 자매님, 반갑습니다! 스타야, 반갑구나.” 감독님은 따스한 미소로 악수를 청하셨어요. 스타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잊고 있었어요. 아마도 스타는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될 거예요.

성찬식이 끝나고 스타는 초등학교에 갔어요. 스타는 긴장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쓱 훑어보았어요. 다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스타가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스타는 맥이 빠졌어요. 결국 스타는 혼자였던 거예요.

바로 그때 스타 또래의 여자아이가 반으로 들어왔어요. 스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도 긴장한 것 같아. 가서 말을 걸어야겠다.”

스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난 스타야. 난 회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어. 내 옆에 앉을래?” 스타는 숨을 죽이고 그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 아이가 스타와 친구가 되려고 할까요?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어요. “나는 세라야. 나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 우리는 얼마 전에 온타리오에서 이사를 왔거든.”



스타가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랑 2주 전에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세라의 얼굴에 더 큰 미소가 번졌어요. “같이 배우면 되지!”

스타와 세라는 공과반에 앉았어요. 스타는 이따금 세라와 눈을 마주치며 방긋 웃었어요. 세라도 마주 웃어 주었어요. 스타는 안심이 되어 행복해졌어요. 스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친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공과반에서 교사님이 스타와

세라에게 소개를 부탁하셨어요.

스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이름은 스타 키넵이야. 나는 엄마랑 2주 전에 침례를 받았어.” 스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새 친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얘는 내 친구 세라야.”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 생각해 보기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을 어떻게 환영해 주면 좋을까요?

# 빛이 되라!

엘리자베스 핀보로우

사랑한다

힘들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지지한다

격려한다

권유한다

귀를 기울인다

친구가 된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제3니파이 18:24)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어요. 아래 적힌 방법들을 읽어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도 더해 보세요. 사랑을 보여 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한 사람이 늘 때마다 조금씩 더 넓게 해님을  
색칠해 보세요.

- 사랑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세요.  
**사랑할 사람:** \_\_\_\_\_
- 용서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용서할 사람:** \_\_\_\_\_
- 격려해요:**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친구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점을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요!  
**격려할 사람:** \_\_\_\_\_
- 성신에게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말로써 나쁜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성신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친절을 보여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신의 도움을 받아 도와줄 사람:** \_\_\_\_\_
- 절대 힘들하지 않아요:** 불친절한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믿어 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무시하세요.  
**힘들하지 않을 사람:** \_\_\_\_\_
- 친구를 지지해요:** 친구의 운동 경기나 학교 연극을 보러 가 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지지해 줄 사람:** \_\_\_\_\_
- 복음에 관해 배우라고 권유해요:** 그들이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을 나눌 만큼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복음을 배우도록 권유할 사람:** \_\_\_\_\_
-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돼요:** 다른 사람들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돕고 사랑하셨어요.  
**친구가 되어 줄 사람:** \_\_\_\_\_

# 복음을 전파하며

아래 그림을 사용해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새뮤얼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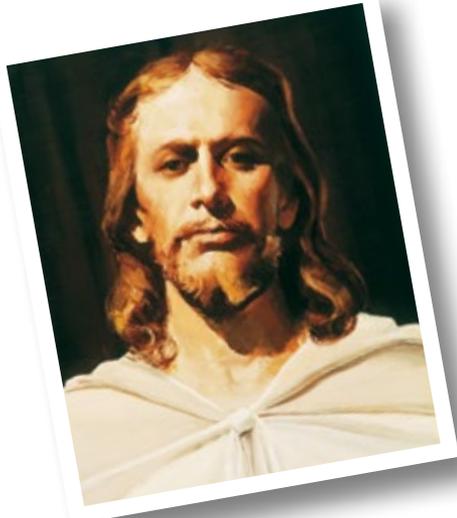
하이럼 스미스



팔리 피 프랫

교회가 조직되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복음에 관해 듣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첫 번째 선교사는 조셉 스미스의 동생인 새뮤얼이었어요. 조셉의 형인 하이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하이럼은 온종일 물문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팔리 피 프랫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이럼은 그에게 교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친 후 침례를 주었어요. 그런 다음 팔리도 선교사로 봉사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 들어가서 교회사에 등장하는 경전 속 인물을 더 찾아보세요.



# 예수님을 생각해요

린지 태너  
실화에 근거함

**미**아는 신이 났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미아의 가족에게 이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미아의 가족은 교회에 가 보기로 했지요.

미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탁자 위에 하얀 천이 보였어요. 그 밑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 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미아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한슨 자매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성찬이야.” 성찬. 어려운 말이었어요. 미아는 선교사님들이 엄마 아빠에게 성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아는 그게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모두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 두 분이 하얀 천을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는 빵이 담긴 쟁반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빵을 작게 떼어 놓았어요.

노래가 끝났고 그중 한 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빵을 건네주었어요.

“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게 도와준단다.” 가르시아 자매님이 속삭였어요.



미아도 빵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어요.

남자분들이 또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물컵들이 담긴 쟁반이 전달됐어요.

“물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거야.” 가르시아 자매님이 속삭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단다.”

미아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꼭 안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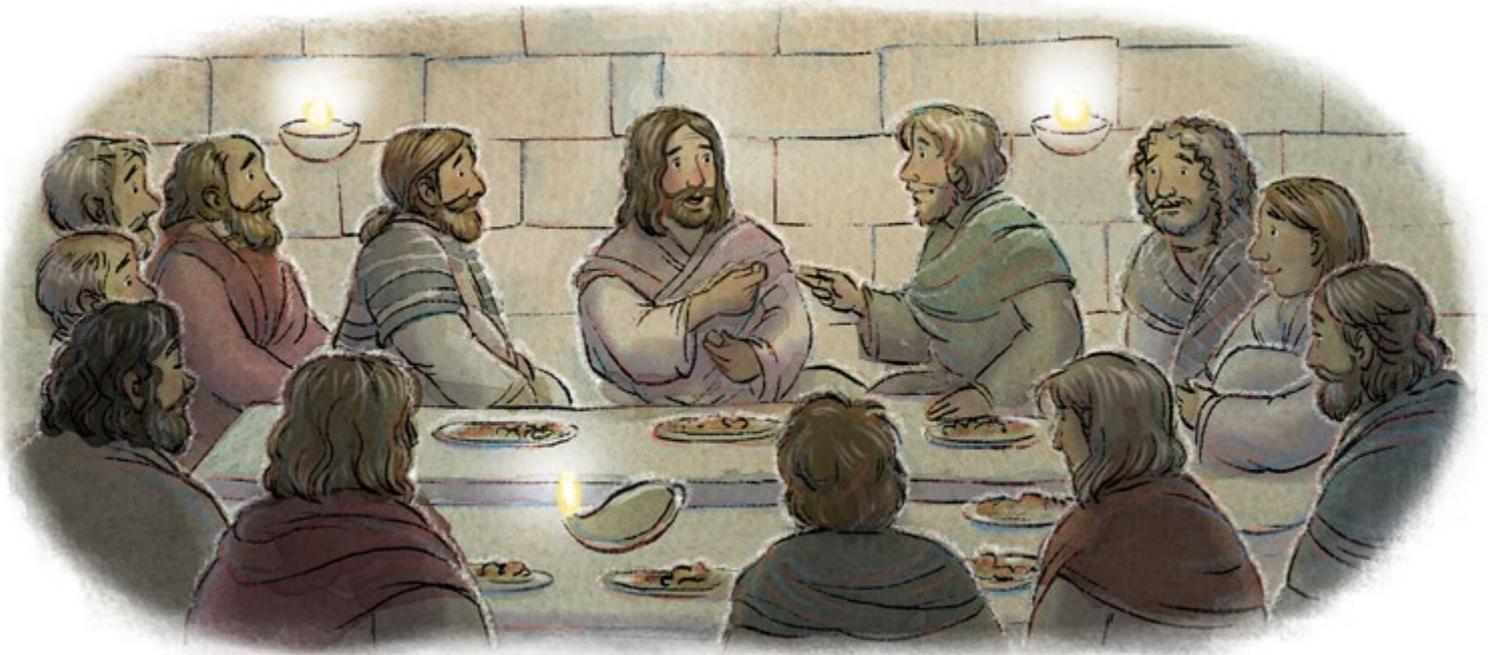
한슨 자매님이 미아에게 예수님이 그려진 작은 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려고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단다.” 자매님이 미소 지었어요. “성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니?”

미아는 예수님 그림을 들여다보았어요. 좀 전에 받았던 따뜻한 느낌도 떠올렸어요. 미아도 미소 지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산다.

# 성찬을 베푸신 예수님

김 웹 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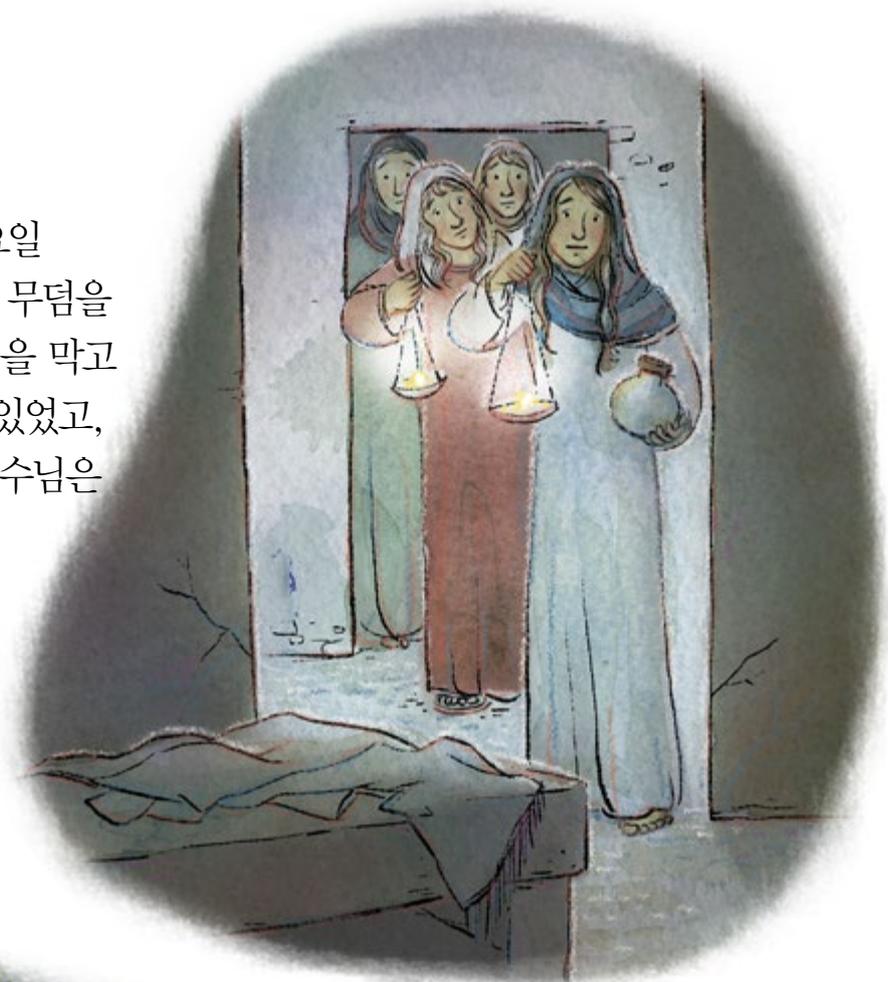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만찬을 위해 사도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마련해 주시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와 슬픔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뒤 무덤에 묻히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일요일  
아침이 되자, 여인 몇 명이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도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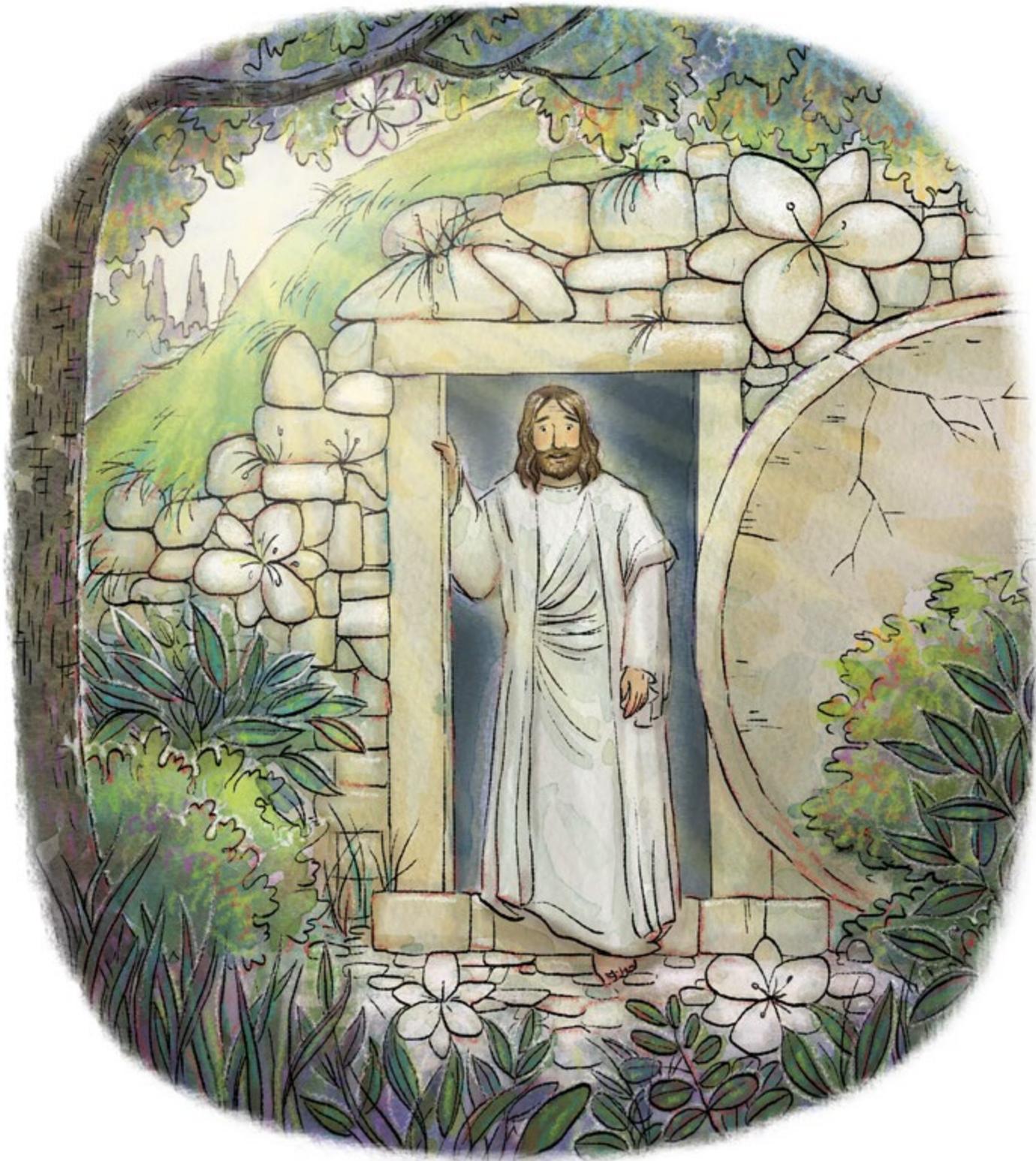
나는 성찬을 취할 때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



# 부활절 백합



희고 아름다운 부활절 백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아름다운 날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는 하얀 백합 다섯 송이가 숨어 있어요. 한 송이를 찾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을 한 가지씩 말해 보세요.





브루스 알 맥킴(1915~198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하나님의 권능

신앙은 권능이며, 권능은 곧 신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신앙과 모든 권세와 모든 신권을 구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위하시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 일컫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앙과 권능을 얻는 만큼, 그분이 지니신 신권을 행사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참된 의미에서 그분과 같이 될 때, 우리도 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권은 늘 함께합니다. 신앙은 권능이며, 권능은 곧 신권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후 신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뒤 신권을 통하여 신앙은 더욱 자라게 되며, 모든 권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이 지상에서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고 신권의 권능을 키워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

에녹의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을 완전히 하기 위해 성 신권이 잘 활용된 시대였습니다. 당시 에녹의 반차라고 알려진 이것은(교리와 성약 76:57 참조) 그와 그의 백성들이 들려져 올라갈 수 있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져 옮겨진 것은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고 그들이 신권의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신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열방의 군대를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과 승영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성약을 주셨습니다.

멜기세덱도 에녹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의를 행하였고 하늘을 얻었으며 ... 에녹의 도시를 구하였”습니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14:34) ...

그러면 신권의 교리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교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힘과 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무한하신

특성을 지니시고, 가족 단위 가운데 살고 계시는 영화롭고 완전하시며 승영에 이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교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신앙과 무한한 신권을 지니고 계시기에 이 영광과 완전하심과 권능을 누린다고 말해 줍니다.

또한 이 교리는 신권이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이름이며, 만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의 신권 또는 권능을 받아야 하며, 그분이 그 권능을 행사하시듯이 우리도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이 교리는 우리가 그분의 신앙과 완전하심과 권능을 얻었기에,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신권의 충만함을 얻었기에, 우리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하고 삶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권의 교리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의로움을 통해 이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권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얻고 사용하기를 구하며, 이 권능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위에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전한 말씀, “신권의 교리”에서 발췌함. 리아호나, 1982년 7월호, 50~53쪽. 번역 및 구두법 수정.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엘스페스 영**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미대륙과 또 다른 곳에 있는 그분의 “다른 양들”을 방문하셨다.(제3니파이 15:21) 니파이인들은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며,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윅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다].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으며,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다].”(제3니파이 11:15)

#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 청년 성인

### 축복사의 축복에 대한 이해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언급해 주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큰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도가 되어 줄 수 있다.



44쪽

## 청소년



58쪽

### 그들은 **그분** 을 보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 어린이

### 성찬을 베푸신 예수님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한다. 여러분의 자녀는 왜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지 아는가?



7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14444 320